

상명대학교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 2023년도 하계 학술심포지엄

조선에 탐닉한 일본인, 조선을 탐한 일본

주최 : 상명대학교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

“조선에 탐닉한 일본인, 조선을 탐한 일본”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 구글 MEET

주최 : 상명대학교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

시 간	일 정	사 회
2:00 - 2:10	개 회 식 개회사 : 장영숙 (상명대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희신 (상명대)
2:10 - 2:50	발표 1 발 표 : 이기원 (강원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일본정신 형성과 조선인식」 → 토 론 : 허지은 (서강대)	
	발표 2 발 표 :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 시기 일본의 조선정보수집과 인식」 → 토 론 : 최보영 (용인대)	
3:50 - 4:30	발표 3 발 표 : 최혜주 (한양대) 「일본인의 조선안내서 간행과 실태」 → 토 론 : 하지연 (이화여대)	
	발표 4 발 표 : 이한정 (상명대) 「일본 문학인 여행기를 통해 본 조선과 중국에 대한 인식」 → 토 론 : 권희주 (건국대)	
5:30	폐 회	

【발표 1】

아라이 하쿠세키의 ‘일본정신’의 형성과 ‘조선’ 인식

이기원(강원대)

1. 머리말
2. 일본어와 일본정신의 루트를 찾아서
3. ‘일본정신’의 형성에서 보이는 조선
4. ‘중화’와 ‘반중화’의 사이에서
5. 맺음말

1. 머리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는 고후번(甲府藩)의 번주 도쿠가와 쓰나토요(德川綱豊, 1662-1712), 즉 6대 쇼군이 되는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의 유신(儒臣)으로 정계에 등장했다. 하쿠세키는 마나베 아키후사(間部詮房, 1666-1720)와 함께 이른바 ‘정덕의 치(正徳の治, 1709-1716)’라 불리는 정치개혁을 주도했다. 하쿠세키에 의해 단행된 주요 정책은 유학에 기초한 예법제도의 제정, 화폐개혁, 조선통신사 병폐개정 등이었다. 이후 하쿠세키는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가 8대 쇼군에 오르자 정계에서 물러나게 된다.

유야사 조잔(湯淺常山, 1708-1781)은 『문회잡기』에서 하쿠세키에 대해 “기노시타 준앙의 문인중에 준앙이 사카키바라 고슈와 하쿠세키 두 사람에게 뜻을 묻자 두 사람이 입을 모아 천하유용의 학문을 해야 한다는 뜻을 말했다. 고슈는 율학, 하쿠세키는 일본의 전고(典故)에 밝은 학문을 했다”¹⁾고 전한다. 하쿠세키는 사카키바라 고슈(榊原篁洲, 1656-1706), 무로 큐소, 아메노모리 호슈, 기온 난카이(祇園南海, 1676-1751)와 함께 ‘모쿠몬(木門: 기노시타 준앙을 지칭)의 다섯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기노시타 준앙(木下順庵, 1622-1699) 문하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하쿠세키에 대해서는 막부의 정치를 강화하는 힘이 되어 학문과 정치를 결합시켰으며 결국

1) 湯淺常山, 『文會雜記』上卷, 183-184쪽(『日本隨筆大成』14, 吉川弘文館, 1975).

막부 옹호 이론이 되었다는 평가²⁾, 조선관련 문제, 일본적 내셔널리즘의 측면에 대한 접근이 주를 이룬다. 하쿠세키는 조선통신사와 빙례개정 문제³⁾를 일으켰으며 조선 멸시관적 태도를 견지했다.⁴⁾ 일본적 내셔널리즘과 관련하여 하쿠세키의 조선 멸시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저서에 대해 “일본 근대 내셔널리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텍스트의 탄생”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언설들이 “그때까지의 일본인이 알지 못했던, 혹은 의식화되지 않았던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⁵⁾ 하쿠세키의 조선 멸시관이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또한 하쿠세키가 조선과의 빙례 개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국가 간 외교에서의 ‘대등성의 추구’이지만 문화의식적 측면에서는 ‘일본 우월인식이라는 콤플렉스’의 반영이라는 견해도 있다.⁶⁾ 한편 하쿠세키는 “자기의 그것과 다른 입장이나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신”⁷⁾의 소유자였다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하쿠세키의 조선 멸시관적 언설이 일본적 아이덴티티 형성의 에너지로 작용했다거나 근대 일본 내셔널리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일본정신’ 혹은 ‘자의식’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쿠세키가 조선 멸시관적 언설을 강렬하게 생산해내면서까지 확립하려 했던 ‘일본’과 그 일본의 근간에 있는 ‘정신’의 행방, 나아가 ‘일본정신’과 유학의 위치 문제이다. 하쿠세키가 『동아』를 저술하여 일본어의 원형을 탐색한 것이나, 『독사여론』이나 『고사통』, 『고사통혹문』 등에서 일본 역사에 대한 재검토, 조선통신사의 응대에서 보인 고약의 연주(『좌간필어』)나 조선통신사와의 필담집인 『강관필담』에서 중국 고대의 예악이 일본에 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일본 유학을 설명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에 본 발표는 하쿠세키가 정립한 ‘일본정신’의 근간에 있는 것과 ‘정신’의 형성에서 ‘조선’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고찰한다.

2. 일본어와 일본정신의 루트를 찾아서

하쿠세키는 『동아』(20권, 1719)에서 ‘일본어의 원형’을 탐색했다. 『동아』는 ‘범례’와 ‘총론’에 이어 ‘天文’, ‘地輿’, ‘神祇’, ‘人倫’, ‘宮室’, ‘器用’, ‘飲食’, ‘穀蔬’, ‘草莽’, ‘樹竹’, ‘禽獸’, ‘鱗介’, ‘虫豸’의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한자 705개의 일본어 독음과 그 유래 및 의미를 기술한 저서이다. 『동아』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천하의 말에는 고언이 있고 금언이 있다. 고금 간에 또 그 방언이 있고 방언 중에는 또 각기 아언이 있고 속언이 있다. 고언이란 태고로부터 근고에 이르기까지 그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것의 언어이다. 금언이란 근세 사람이 말하는 언어이다.⁸⁾

2) 藤田勝年, 『新井白石の學問と思想』, 雄山閣, 1973, 469쪽.

3) 하쿠세키의 빙례개정 문제는 정응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조선통신사 의례 개정에 관하여」, 『일본문화학보』24, 한국일본문화학회, 2005, 참조.

4) 정응수, 「新井白石의 조선관」, 『남서울대학교논문집2』, 남서울대학교, 1996, 참조.

5) 井上厚史, 『相克の日韓關係史』, 溪水社, 2020, 81쪽.

6) 中尾宏, 「辛卯正徳度通信史とその時代」, 『大系朝鮮通信史』第4卷辛卯·正徳度, 明石書店, 1993, 69-70쪽.

7) 加藤周一, 「新井白石の世界」, 日本思想大系, 『新井白石』, 岩波書店, 1975, 506쪽.

8) 『東雅』, <總論>, 5쪽(『新井白石全集』第4卷, 国書刊行会, 1977)

여기에서 보듯이 하쿠세키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일본어, 즉 고언, 금언, 방언, 아언, 속언 등 당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찾아간다. 일본어에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언어가 있다.

육경의 학이 전해진 이래 백제의 박사 등이 그 학문을 가지고 와서 섬겼는데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중략) 그로부터 불씨의 책이 또 전해지고 범어도 그 가르침과 함께 여기에 행해지고 그 후 또 선종이 전래된 후에 송, 원 대대로의 방언이 우리나라의 속언이 된 것도 또한 적지 않다. 근세가 되어서 서남양의 번어(蕃語)도 세간에 행해졌다.⁹⁾

백제, 불교의 서책, 범어, 중국, 서양의 언어 등이 태고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전해져 일본어를 형성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쿠세키가 일본어의 원형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둔 이유는 “지금 언어의 의미를 취하는 예를 따라 옛 언어를 해석하면 실로 그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고에는 상고의 풍속이 있고 중고에는 중고의 풍속이 있으며 근고는 근고의 풍속이 있다”¹⁰⁾는 판단에서였다. 언어에는 각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상고, 중고, 근고 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언어는 변천하기 때문이다. 근세의 언어로 중고시대의 언어나 상고시대의 언어를 해석하면 부합하지 않는다. 언어의 성음(聲音)이 변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음이 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태고의 말에서는 ㅎ을 ‘히(ヒ)’라고 했다. ‘히’라는 말이 변하여 ‘후(フ)’라 하고 또 변하여 ‘요(ユ)’라 했다. 그 ‘요’라는 언어가 또 접미사의 도움으로 ‘요시(ヨシ)’라 했는데 그 말이 또 변하여 지금은 중앙과 동서남북의 방언에 의해 ‘요시’라 하고 ‘요키(ヨキ)’라 하고 ‘요카(ヨカ)’라 하고 ‘요쿠(ヨク)’라 하고 또 ‘요후(ユフ)’ 등으로도 말한다.¹¹⁾

여기에서 보듯이 ‘선’이라는 한자의 일본어 발음이 ‘히’에서 ‘후’, ‘요’, ‘요시’, ‘요키’, ‘요카’, ‘요쿠’, ‘요후’로 변천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쿠세키는 각 시대의 언어와 발음의 변천을 추적하는데 어떤 성음이 고대, 중세, 근세의 것인지를 분별했다. 예를 들어 “필(筆)을 ‘후미데(フミテ)’라 하는 것은 고어이다. 연(硯)을 ‘스미스리(スミスリ)’라 하는 것도 또한 고어이다. 『왜명초(倭名抄)』를 함께 봐야 한다”¹²⁾고 했다. 여기서 하쿠세키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필’자의 ‘후미데’, ‘연’자의 ‘스미스리’라는 발음이 ‘고어’이며 그 전거가 『왜명초』라는 부분이다. 『왜명초』는 헤이안시대인 931-938년 무렵에 간행된 『왜명유취초(倭名類聚抄)』로 보인다. 고전에 제시된 ‘고어’가 일본어의 원형이라는 점이다.

하쿠세키가 일본어의 원형을 찾아가는데 활용한 주요 전거는 “고언의 의미를 구하는데 『고사기』에 기술되어 있는 바 그 올바름을 얻었다고 보이는 것이 많고 『고어습유』가 뒤를 이었다. 각국의 『풍토기』 안에 그 징험이라 할 것이 없지 않다. 『일본기』에 보이는 노래나 『만엽집』의 노래 가사처럼 옛 사람이 해석한 바에 마음을 침잠할 일이다”, 또는 “한자를 이용하여 이 나라의 말을 표현한 것은 『구사기』를 처음으로 한다”¹³⁾고 하여 『구사기』, 『고사기』, 『일본서기』, 『성씨록』, 『고어습유』, 『풍토기』 등 일본의 고전이었던. 일본어의 원형은 고언, 고어로

9) 『東雅』, <總論>, 6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0) 『東雅』, <總論>, 6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1) 『東雅』, <總論>, 9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2) 『東雅』, <總論>, 11-12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3) 이상 『東雅』, <總論>, 13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표현되고 있다. 고언과 고언의 해명이 주안점이 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일본식의 한자음에는 한반도에서 온 것도 상당수 있다. 그 한 예로 “태고부터 해(海)자를 발음하여 아마(アマ)라 해 왔는데 또 한지(韓地)의 방언으로 와타(ワタ)라고도 한다. 『일본서기』의 석훈에 ‘해’ 자를 혼독하여 호타이(ホタイ)라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다. 또한 지금도 조선 동남의 풍속에 바다를 발음하여 하타이(ハタイ)라 한다. (중략) 보(ボ)라고 하고 바(バ)라는 음은 이 나라에 없는 것이다”¹⁴⁾는 기술이 있다. ‘한지’는 한반도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방언이 일본에 들어와 일본어의 한 축을 구성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쿠세키는 바다를 뜻하는 ‘해’자를 ‘와타’라고 발음하는 것은 고대 일본에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바다를 와타라 발음하는 것은 이자나기와 이자니미 두 신이 낳은 신중에 오와타쓰미노가미(大綿津見神), 와타쓰노가미(綿津見神)에 보이는데 와타쓰미(海神)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⁵⁾고 했다. 여기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이자니미와 이자나기가 낳은 오와타쓰미노가미(大綿津見神), 와타쓰노가미(綿津見神)가 있는데 이 두 신은 ‘오와타쓰미(大海神)’ 즉 바다의 신이다. 하쿠세키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바다의 신을 지칭하는 ‘와타쓰미’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와타’라는 말이 반드시 한반도에서 들어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쿠세키는 “우리나라의 고언이 그 의미가 숨어 잃어버린 일은 한자가 행해져 고문이 폐한 것에 의한 것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¹⁶⁾고 했다. 고대 일본에 중국의 한자가 들어와 일본어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중국, 조선, 범어, 서남양의 언어 등 해외 나라들의 언어가 일본어에 혼입되어 일본어 자체가 변해 버렸다. 이에 대해 하쿠세키는 “이쪽의 말과 그쪽의 문자와 주객의 구분이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말은 태고의 처음부터 말해져 온 것은 즉 주이며 해외의 말과 같은 것은 즉 객이다”¹⁷⁾고 하여 태고의 일본에서는 일본어가 주체였고 외국어는 어디까지가 객체였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한자가 성행함에 따라 그 의미를 모두 그쪽에 따르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후에 객이 결국 주가 되고 주는 또 객이 되는”¹⁸⁾ 주객전도가 발생했다. 외래어와 일본 고유어의 식별을 통해 일본어의 본래 모습인 ‘고언’과 ‘고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쿠세키는 어느 말이 일본 고유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天을 소라(ソラ)라고 하고 晝를 히루(ヒル)라고 하고 洲를 시마(シマ)라고 하고 船을 후나(フナ)라고 하고 量을 하카리(ハカリ)라고 하고 (중략) 母를 오모(オモ)라 하고 (중략) 『구사기』, 『고사기』, 『일본서기』 등에 기술되어 상세의 말과 비슷한 것도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의혹이 남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범어에서 말하는 바와 이쪽에서 말하는 바와 그 발음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쪽과 이쪽 말이 서로 닮은 것도 아니어서 위에 기술한 것처럼 그쪽의 말을 취하여 이쪽의 말로 삼는 것과는 같지 않다.¹⁹⁾

여기에서 보듯이 하쿠세키는 천(天)의 소라(ソラ), 주(晝)의 히루(ヒル), 주(洲)의 시마(シマ), 선(船)의 후나(フナ), 량(量)의 하카리(ハカリ), 모(母)의 오모(オモ) 등은 『구사기』, 『고사기』, 『일본서기』 등에 보이는 것으로 범어와 발음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14) 『東雅』, <總論>, 15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5) 『東雅』, <總論>, 16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6) 『東雅』, <總論>, 15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7) 『東雅』, <總論>, 15-16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8) 『東雅』, <總論>, 16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19) 『東雅』, <總論>, 17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있다.

그렇다면 하쿠세키가 『동아』에서 한자음을 어떻게 고증해 갔는지 그 실례를 보자.

天: 아메(アメ), 의불상(義不詳). (중략) 天을 아메라 하고 아마라 하는 뜻은 옛 해석에서도 그 설이 많다. 그렇지만 중국의 언어도 원래 같지 않다. 우리나라의 말에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같은 것도 또 그러하다. 중국, 인도의 서책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말을 해석하는데 가령 한 둘의 닳은 것이 있다 해도 모두가 전부 그 의미가 서로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의 모습에 따라 그 말을 해석해야 한다.²⁰⁾

여기에서 보듯이 ‘천’자의 독음을 ‘아메’라 읽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아마’라는 독음도 존재한다. ‘천’자는 전술한 것처럼 ‘소라’라고도 발음한다. 하쿠세키는 ‘일본어에는 일본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국이나 인도, 한반도 등의 외국의 언어에 일본어와 비슷한 발음이 있다고 해서 일본어의 어원이 중국어나 인도어, 또는 한반도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 한 예로 ‘日’자에 대한 하쿠세키의 설명을 보자. 하쿠세키는 ‘日’자의 일본어 독음을 ‘히(ヒ)’라고 적고는 그 이유에 대해 “히(ヒ)란 靈(ヒ)이다. 상고 시대에 사물의 영을 칭하여 ‘히’라고 했다. 후에 한자를 차용하여 영(靈) 자를 읽어 ‘히’라고 한 것이다. 『구사기』에 産靈을 ‘무스히(ムスヒ)’라 한 것을 『고사기』에는 産巢靈으로 표기하여 읽어 ‘무스히’라 했는데 즉 日은 靈의 뜻이기 때문이다”²¹⁾고 했다. ‘日’자를 ‘히’라고 읽는 것은 고대 일본에서 靈자를 ‘히’라고 읽는 것에 의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하쿠세키는 ‘日’자를 ‘히’라 읽는 이유가 ‘産靈’을 ‘무스히’라 읽거나 ‘産巢靈’을 ‘무스히’라 읽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판단했다. 애당초 일본어 발음이 있고 한자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어 발음을 한자에 차용하여 표기하게 되면서 ‘日’자가 ‘히’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쿠세키의 일본어의 원형을 탐색하는 작업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하쿠세키는 일본어 원형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일본어에 혼입된 다양한 외래어와의 공존적 시점을 강조하려 한 것은 아니다. 하쿠세키는 “태고의 언어에는 그 서물의 선술(選述)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된 것으로 (중략)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 없다”²²⁾고 했다. 언어는 ‘의미’를 표현한 것. 즉 일본어는 일본인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의미’는 곧 일본인의 ‘정신’이다. 이어 하쿠세키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 따라(중국의 용법에 따라) 이쪽(일본의 용법)을 틀렸다 하고 대체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²³⁾고도 했다. 일본어는 일본어의 문법으로 독해해야 일본어의 의미가 확연해지며 여기에서 ‘일본정신’이 밝혀진다. 하쿠세키는 『동아』의 <범례>에서 “이 책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물(物)과 이름(名)을 해석하는 것에 있다”²⁴⁾고 했다. ‘일본정신’은 ‘명물’이 일치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하쿠세키는 일본어에 내재해 있는 순수한 일본인의 정신과 그 정신을 바탕으로 ‘명물’이 일치된 세계를 발견하고자 했다. 거기에 일본인의 고유한 의식이 발현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하쿠세키의 ‘국체’와 관련된 언설들은 이러한 고유한 일본어로 발견된 ‘일본정신’을 바탕으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20) 『東雅』卷1, <天文>, 23쪽(『新井白石全集』第4卷).

21) 『東雅』卷1, <天文>, 24쪽(『新井白石全集』第4卷).

22) 『東雅』<總論>, 6쪽(『新井白石全集』第4卷).

23) 『東雅』<總論>, 14쪽(『新井白石全集』第4卷).

24) 『東雅』<凡例>, 19쪽(『新井白石全集』第4卷).

3. ‘일본정신’의 형성에서 보이는 조선

하쿠세키는 언어 연구에서 찾은 ‘일본정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다시 보는 시점을 확보해 나갔다. 하쿠세키의 조선관련 언설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된다.

본조의 국사를 접함에 처음 신공황후가 삼한을 정벌하시어 그 나라에 일본부를 두고 그 나라를 다스린 이래 사이메이(齊明) 천황에 이르기까지 무릇 천황 24대, 역수 460여 년 간은 그 나라의 임금과 백성이 우리 조정의 신첩이 아니라 한 자는 없다. 이 일은 홀로 본조의 국사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진·송·제·양 등 남북국의 여러 사서, 『구당서』 및 『백제본기』 등의 책에 자세하다.²⁵⁾

이것은 하쿠세키의 조선 멸시관의 바탕에 있는 신공황후의 삼한 정벌담이다. 하쿠세키는 한반도가 예전부터 ‘일본의 신첩’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하쿠세키의 조선 멸시적 언설에서 살펴볼 문제는 하쿠세키의 실증적 태도의 이면에 있는 자의식과 타자인식이다. 확실히 하쿠세키는 내셔널리즘을 환기시키는 언설을 다수 발신했는데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역대 서책 모두를 보니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그 나라의 신하로 복속시킨 일을 이와 같이 기록해 두었는데, 심하게는 왜추, 왜노, 왜적 등으로 표한 것은 붓으로 다할 수 없다. 추장이란 만이(蠻夷)의 우두머리의 칭호를 이르는데 오랑캐의 장을 저속하게 부르는 말이며, 노비(奴)라고도 하고 해적(賊)이라고도 하는 것은 사람을 아주 낮게 부르는 말이다.²⁶⁾

하쿠세키는 한반도의 삼국이 일본의 신첩이었다고 했는데 이와 반대로 조선에서는 일본을 신하의 나라로 표현했다거나 일본을 ‘왜추’, ‘왜노’, ‘왜적’ 등으로 부른다는 것에 대한 하쿠세키의 반발을 감지할 수 있다.

하쿠세키의 일본 관련 언설에는 ‘국체’, ‘국가의 치욕’이라는 말은 조선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 “그러한 때에 맞게 취사 절충하는 것인데, 국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많다”²⁷⁾거나 “모든 이러한 일에는 국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무가의 옛 법도가 있다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할 것도 없다”²⁸⁾고 하여 조선과의 국가 간 의례에서 ‘국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하쿠세키가 조선과의 외교에서 일본의 최고 통치자를 무엇이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국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속성으로서의 ‘국체’이해이다. 이것이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쇼군의 칭호문제였다.

일본 측에서는 국서에 ‘일본국원가광(日本國源家光)’처럼 나라 이름과 쇼군의 이름을 써오다가 3대 쇼군 이에미쓰 때부터는 ‘일본국 대군’으로 고쳤다. 하쿠세키는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쿠세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군’이라는 칭호는 천황의 이칭(異稱)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대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천황을 참칭하는 것이 된다. 조선에서는 왕의 적자를 ‘대군’이라 칭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군’을 사용하면 조선의 신하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하쿠세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 「朝鮮国信書の式の事」, 671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26) 「朝鮮聘使後議」, 683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27) 『折たく柴の記』卷中, 81쪽(『新井白石全集』 第3卷).

28) 『折たく柴の記』卷中, 91쪽(『新井白石全集』 第3卷).

‘일본국 대군’을 ‘일본국왕’으로 고쳤다.²⁹⁾ 하쿠세키는 일본의 ‘국체’는 국가 간 외교에서의 대등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하쿠세키의 ‘국가 간 대등성’을 갖는 ‘국체’는 일본우월주의로 발전해 갔다. 하쿠세키의 일본우월주의는 전술한 것처럼 신공황후 정벌담에 의한 ‘그 나라의 임금과 백성이 이 우리 조정의 신첩’이라는 인식에서 기본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우월주의는 임진왜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보인다.

어떻게든 백성들을 소생시킬 것을 생각했는데 동조궁(도쿠가와 이에야스)이 다스리게 되어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는 것을 전해 듣고 또 조선의 남녀가 우리 병사에 잡혀 와서 송환된 수가 전후 3천명에 이르니 드디어 양국은 화해하게 되었다. (중략) 우리나라의 재조(再造)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군신(君臣)이 오랫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략) 그 통신사를 맞이하는 일은 원래부터 양국이 화해에 의한 것인데 그 불공한 일도 책망하기에 미치지 못한다.³⁰⁾

하쿠세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면서 조선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을 ‘재조의 은’이라 인식하고 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 다시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쿠세키는 다시 재개된 조선통신사와의 빙례 문제에서도 조선의 불공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하쿠세키의 인식은 점점 발전하여 “조선은 오랫동안 이웃으로 호의를 맺어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³¹⁾거나 “조선은 교활하여 거짓이 많고 이익이 있으면 신의를 돌아보지 않는다”³²⁾고 하여 조선은 ‘호의’, ‘신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간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쿠세키의 일본우월주의는 이탈리아의 가톨릭 사제 시도티를 심문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서양기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쿠세키는 시도티에게 서양의 학문에 대해 “그쪽의 학문은 단지 형(形)과 기(器)에 정밀한 것을, 형이하학만을 알고 형이상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³³⁾고 했다. 서양학문이 형이하학,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형이상학,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인식이다.³⁴⁾ 이처럼 하쿠세키에 보이는 자의식은 ‘정신’의 우월성으로 발전했다. 그에게 ‘정신’은 문명으로 이끄는 길이였다.

4. ‘중화’와 ‘반중화’의 사이에서

1711년 조선통신사 조태역(1675-1728), 임수간(1665-1721), 이방언(1675-?) 등과 하쿠세키가 필담한 내용을 정리한 『강관필담』과 『좌간필어』가 있다. 『좌간필어』의 서문에는 “조선은 원래 우리의 속국인데 저들은 예의와 의관의 나라로 자처한다”³⁵⁾는 스즈키(鈴木公溫)의 문장이 있다. 이것을 보면 하쿠세키 주변의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볼 수 있다. 『좌간필어』는 1711년 11월 3일 조선통신사 연회에서 연주된 아악(雅樂:제례악) 공연과 관련된 것이다.

29) 新井白石, 「朝鮮国信書の式の事」, 671-674쪽(『新井白石全集』第4卷). 정응수, 「아라이 하쿠세키의 조선 의례 개정에 관하여」, 앞의 논문, 참조.

30) 「朝鮮聘事後議」, 679쪽(『新井白石全集』第4卷).

31) 「朝鮮聘使後議」, 683쪽(『新井白石全集』第4卷).

32) 「国書復号紀書」, 702쪽(『新井白石全集』第4卷).

33) 『西洋紀聞』, 749쪽(『新井白石全集』第4卷).

34) 이러한 하쿠세키의 형이하학, 형이상학적 이해에 대해 근대에 와서 형성되는 ‘동양도덕, 서양기술’, 또는 ‘화혼양재’적 사고방식의 표출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하미, 「일본의 서양연구 시점에 대하여-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시도티 심문과 관련하여」, 『민족과 문화』 9권,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2000, 405쪽.

35) 『坐間筆語』, 721쪽(『新井白石全集』第4卷).

아악은 중국 고대의 예악에 기초한 음악이다. 조선통신사 연회에서 아악 공연을 주장한 사람이 하쿠세키이다.

여기서 공연된 아악은 진모-삼대염-장보락을 시작으로 납증리, 장경자로 끝나는 12곡 이었다. 12곡중 장보락(長保樂), 인화락(仁和樂), 고조소(古鳥蘇), 임가(林歌), 납증리(納曾利)는 고려악이며 삼대염(三臺鹽), 태평락(太平樂), 감주(甘州), 능왕(陵王)은 당악이다. 연회에서 중국의 음악과 고려의 음악이 함께 연주된 것을 보면 아악이 아니라 연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대염이 연주되었을 때 하쿠세키가 “소름염곡의 하나이다. 수당 때 이것을 연악에 갖추어 넣었다”고 하자 조태역이 “어찌 소호(韶濩:순의 음악과 탕의 음악)를 취하지 않고 외국의 소리를 섞어서 사용하는가”하고 반문한다. 이에 하쿠세키는 “그렇기 때문에 연악이라 한다”고 답한다.³⁶⁾ 또한 하쿠세키는 ‘장보락’이 연주되었을 때 조태역에게 “귀국에도 이러한 춤이 있는가”하고 묻자 조태역은 “예전 왕조의 음악은 지금 없다”고 답한다. 조선에 고려악(고구려악)은 전해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쿠세키는 고려악이 일본에 남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선통신사의 연회에서 연주된 음악은 아악이 아니라 ‘연악’이었지만 하쿠세키는 조선통신사에게 일본에도 고대부터 아악의 일부가 전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쿠세키가 조선통신사의 연회에서 아악 연주를 강하게 주장한 의도는 ‘능왕’이 연주되었을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임수간이 말하길 제나라 음악이 어찌 귀국에 전파되었는가?

하쿠세키가 말하길 천조에서 수당에 방문을 통할 때에 전래된 것이다.

조태역이 말하길 이들 악보는 비록 삼대의 음악은 아니나 수당 이후 음악이 유일하게 전하는 것이므로 천하에 전해지지 않는 곳이니 진실로 귀한 것이다.

하쿠세키가 말하길 천조는 하늘과 함께 시작되었고 천조의 후손이 하늘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천황이 바로 진정한 천자이다. 서쪽 땅의 역대 왕조가 사람이 천명을 받아서 다른 성을 지닌 사람이 천자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악과 제도가 만세에 한결같다. 저 삼대의 예악 같은 것도 징험할 수가 있는 것이니 어찌 수당 이후를 이르겠는가?

조태역이 말하길 예가 있음이 이와 같고 노래가 있음이 이와 같으니 한 번 변하면 중화에 이르지 않겠는가?(『坐間筆語』, 724쪽)

하쿠세키의 의도는 “천조는 하늘과 함께 시작되었고 천조의 후손이 하늘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천황이 바로 진정한 천자”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악이 전해지는 ‘천자의 나라로서의 일본’은 곧 ‘중화의 나라’이며 ‘문명의 나라’이다. 조태역은 일본에 예악이 전해지는 것을 보니 일본도 ‘중화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쿠세키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쿠세키가 조선통신사와의 대화에서 ‘중화’라는 것에 주의하고 있었다는 것은 『강관필담』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하쿠세키가 서쪽 지방의 여러 나라들이 대청의 관복제도를 쓰고 있는데 조선만이 대명의 옛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조태역은 “천하가 모두 좌임(左衽)을 하지만 오직 우리나라만은 중화의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청국은 우리를 예의의 나라로 여겨 또한 감히 예의가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가하지 못한다. 천하에서 오직 우리만이 동주(東周)가 된다. 귀국도 또한 중화의 제도를 사용할 뜻이 있는가?”³⁷⁾하고 대답한다. 이에 하쿠세키는 “귀국과 류큐는 또한 이미 복면하여 번국으로 칭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변발과 좌임을

36) 『坐間筆語』, 722쪽.

37) 『江關筆談』, 727쪽(『新井白石全集』 第4卷).

면한 것은 대청이 과연 주나라의 덕으로 한 것인가, 강제로 하지 않은 것인가? 애당초 두 나라가 우리 동방의 영험함(靈)을 빌려서인지 또한 아직 알지 못한다”³⁸⁾고 답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행총재』에 있는 『강관필담』에는 하쿠세키가 “어찌 이웃나라의 도움이 없었겠는가”³⁹⁾라고 답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하쿠세키가 말한 ‘이웃나라의 도움’이란 것은 곧 ‘일본의 영험함’을 의미한다. 하쿠세키는 ‘일본의 영험함’이 조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조선이 중화의 예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간주했다. 또한 하쿠세키는 조선을 ‘복면하는 번국’이라 칭한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조태역이 오직 조선만이 ‘동주’ 즉 중화의 나라이며 중화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하쿠세키의 대답이다. 하쿠세키는 조선을 지켜주는 ‘일본의 영험함’을 말하기에 앞서 “은나라의 의례를 징험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번 사행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윽고 군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 의용, 관보, 관복과 홀을 보니 명대의 관복의 제도일 뿐 저들의 장보관과 예복을 본 적이 없다”⁴⁰⁾고 답한다. 하쿠세키는 조선통신사의 복제에서 고대 선왕 시대의 복제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들은 명나라의 복제를 입고 있었다. 하쿠세키는 명나라의 복제를 고대 선왕 시대의 복제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조선 및 명·청에는 고대 선왕 시대의 예법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조선과 중국은 이제 ‘중화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쿠세키는 간주한다.

임수간이 하쿠세키에게 “귀국은 총과 검에 뛰어나다고 한다”고 말한다. 이는 ‘무’의 나라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하쿠세키는 “공들은 우리에게 무를 숭상하는 풍속이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고 하면서도 “우서에 요임금을 찬양하여 성스럽고 신령스러우며 무를 갖추고 문을 갖추었다고 했으니 문무를 한쪽만 숭상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중략) 우리 신조가 천명을 받들어 무력으로 난을 막고 문으로 다스림을 일으켜 열성조가 왕업을 이은 지 지금까지 백년이다. 문무가 충후하니 잔인한 사람을 교화시키고 살생을 경계한 날이었을 뿐이 아니다”⁴¹⁾고 했다. 이처럼 하쿠세키는 일본도 하나라의 요임금처럼 문무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어 하쿠세키는 “양국의 우호관계는 예(禮)와 신(信)이 있을 뿐”이라 했는데 이에 대해 조태역은 “참으로 그러하다. 단지 귀국이 우리나라처럼 성(誠)과 신(信)을 다하지 않을까 염려될 뿐”이라 답했다.⁴²⁾ 하쿠세키는 국가 간 외교에서 ‘예’와 ‘신’을 다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선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과연 ‘성신의 예’를 지키고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쿠세키의 ‘일본의 영험함’ 덕분에 청나라가 조선에 변발과 오랑캐의 풍속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과 국가 간의 우호관계는 예의와 신의가 중요하다는 인식 사이에는 이러한 인식의 굴절이 존재한다.⁴³⁾

5. 맺음말

하쿠세키가 『동아』에서 일본어의 원형을 연구한 것은 언어로 표현되는 의미의 파악을 통해 일본인의 심성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어의 원형을 파악하여 일본

38) 『江關筆談』, 727쪽.

39) 『江關筆談』, 국역 『해행총재』9, 민족문화추진회, 1977, 238쪽.

40) 『江關筆談』, 727쪽.

41) 『江關筆談』, 728쪽.

42) 『江關筆談』, 728쪽.

43) 이러한 하쿠세키의 국가의식은 ‘연대와 공감의 가능성을 단절’시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라노 야스노리 지음·신동규 옮김, 『근세 일본과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104쪽.

어로 표현된 일본인의 심성과 정신을 확인한 하쿠세키는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했다.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는 국가의식으로서의 '국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국체는 일본적 자의식 형성과 관련된다. 여기서 하쿠세키가 '국체'와 일본적 자의식 강화를 위해 끌어온 언설은 조선 멸시관이었다. 이 조선 멸시관은 일본적 우월의식으로 강화되어 가면서 일본적 중화주의로 발전했다. 이것은 하쿠세키가 조선 통신사 연회에서 보여준 중국 고대 아악의 연주와 이와 관련된 조선통신사와의 필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하쿠세키는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이미 사라진 '중화'가 일본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하쿠세키는 일본인의 고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석된 유학적 세계를 확인하여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를 확립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 것이다.

*본 발표문은 「아라이 하쿠세키의 '일본정신'과 '중화'적 시선-‘천하유용의 학’의 행방」『비교일본학』54집(2022)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

이기원, 「아라이 하쿠세키의 '일본정신'의 형성과 '조선' 인식」에 대한 토론문

허지은(서강대)

하쿠세키의 학문과 조선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하쿠세키의 조선 멸시관적 언설이 일본적 아이덴티티 형성의 에너지로 작용했다’거나 ‘근대 일본 내셔널리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에서 하쿠세키가 조선 멸시관적 언설을 생산해내면서까지 정립한 ‘일본정신’의 근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신’의 형성에서 ‘조선’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쿠세키는 (1) 일본어의 원형을 파악 : 일본어로 표현된 일본인의 심성과 정신을 확인 (2)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정립, (3)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는 국가의식으로서의 ‘국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4) ‘국체’와 일본적 자의식 강화를 위해 끌어온 언설이 조선 멸시관 (5) 일본적 우월의식으로 강화되어 가면서 조선멸시관은 일본적 중화주의로 발전했다. 결론적으로 “하쿠세키는 일본인의 고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석된 유학적 세계를 확인하여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를 확립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전개한 논지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p. 2~5 2장. 일본어와 일본정신의 루트를 찾아서 : 『동아』 (1719)

하쿠세키의 일본어의 원형을 탐색한 작업의 의미

: “일본어에 혼입된 다양한 외래어와의 공존적 시점을 강조하려한 것은 아니다. 일본어는 일본인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의미’는 곧 일본인의 ‘정신’이다. 하쿠세키는 일본어에 내재해 있는 순수한 일본인의 정신과 그 정신을 바탕으로 ‘명물’이 일치된 세계를 발견하고자 했다. 거기에 일본인의 고유한 의식이 발현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 일본어의 원형에서 일본인의 ‘정신’을 찾았다는 점

→ 하쿠세키가 일본어 원형 탐색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은?

(2) 하쿠세키는 ‘신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신화를 역사상의 사실에 비교 추정하려고 시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사기』『일본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 설화나 고대의 ‘삼한 조공’ 설을 사실로 인식했습니다. 하쿠세키가 중국·조선의 역사 서적도 읽었고 야마타이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는?

- 도쿠가와 정권이 안정되고 대외 긴장감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질 서 인식이 지식인 사이에 퍼지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당시 하쿠세키와 교류했던 지식인들의 성향과의 관련성 등을 비롯하여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하쿠세키는 1710년 6대 쇼군이 된 이에노부는 소바요닌(마쓰다이라 데루사다·마쓰다이라 다다치카)을 해임하고 대학두(大學頭) 하야시 신토쿠(林信篤)를 억압하며 하쿠세키에게 그의 직책 대부분을 대행시켰다. 無役의 하타모토였지만 쇼군의 시강(侍講)으로 막부 정치 운영에 관영하고, 쇼군의 정치 고문의 역할을 담당했다.

『독사여론』(1712) 6대 쇼군 이에노부에게 시강한 강의 기록을 문인들이 정서한 원고에, 1724년 하쿠세키가 발문을 더한 것이다. 이 저술은 기본적으로 왕권일원론과 역성혁명론을 일본 역사 해석에 적용한 것으로, 도쿠가와 막부 정치의 이념적 기반을 확립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론에서 막부의 정치를 ‘유학적 인정(仁政)의 정치로 자리매김’하려고 한 것이다.

『고사통』(1716) 신대부터 진무(神武) 천황까지의 전승을 고찰한 사론으로 고대의 전승에 대한 해석 방법으로 한자보다 일본의 고어에 의해 그 뜻을 탐구할 것, 그리고 일본서기(日本書紀)뿐 아니라 『고사기(古事記)』와 같은 역사서를 참고하여 사실(史實)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저서는 ‘쇼군의 일본국양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에서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논증’하려고 한 것에 특성이 있다.

→ 정권 중추에 있던 하쿠세키의 ‘국가’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고, 일본어 원형의 탐색이나 저술 작업도 쇼군의 정치 고문의 입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하쿠세키의 언설이 당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었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1711년 통신시행 때 문제가 되었던 쇼군의 ‘국왕’칭호와 관련하여 아메노모리 호슈와의 대립, 하쿠세키의 정책을 두고 막부 각료들과 마찰도 빚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결국 7대 쇼군 이에쓰구가 요절한 후 8대 쇼군 요시무네가 쇼군이 되자 하쿠세키의 많은 정책 자료는 폐기처분되고 막부에 현상했던 저서도 버려졌다. 통신사 빙례와 관련된 부분도 원래대로 돌아갔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 시기 일본의 조선 정보 수집과 인식¹⁾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

1. 들어가며
2. 운요호의 1차 조선 도항과 동해안 정탐 활동
3. 운요호의 2차 조선 도항과 강화도·영종도 일대 공격
4. 나가며

1. 들어가며

1875년 9월 20일 소식을 밝히지 않은 일련의 군인들이 보트를 타고 강화도 부근으로 접근하였다. 이들이 타고 있던 보트는 한강 하구와 연결되는 염하(鹽河)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 소속인지 판단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포대 근처를 지나가는 선박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조선 측에서는 이들의 내해(內海)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포격을 가했다. 그러자 보트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한참 응사를 하다가 함선으로 돌아갔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져 22일에는 영종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1876년 1월 일본 정부는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를 전권대신으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부전권으로 조선에 파견해 조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선 정부는 신헌(申櫛)과 윤자승(尹滋承)을 협상 대표로 파견하여 일본 사절을 맞이하도록 했다. 이들은 세 차례의 협상을 거쳐 일본 측이 제시한 13개의 조관을 검토하고 다듬어 최종적으로 12개 조관으로 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완성하였다.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연무당에서 조일 양국 대표는 체결 조약을 조인하였다.

1) 본 발표문은 「1875년 운요호 사건의 전개와 강화도방어」(『19세기 서구열강의 침입과 강화해양관방체제』,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2018) 원고에 운요호의 조선 도항과 관련하여 확인한 일본 측 자료를 새로 추가하고, 내용 서술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또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된 『明治八孟春雲揚朝鮮回航記事』 원본 수록 내용까지 교차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발표자의 여러 제약과 사정으로 인하여 발표 제목, 애초의 구상과 다르게 1875년 운요호의 조선 파견을 중심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는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조선의 개항과 관련하여 일대 계기가 되었던 운요호 사건은 그동안 근대 한일관계의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서계(書契)에서 사용할 용어의 격식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신경전,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 단행, 조일 양국의 중간에서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쓰시마(對馬)의 청원 운동 등으로 인하여 양국의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것을 일거에 깨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 것이 운요호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운요호 사건에 대해서는 한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사건을 둘러싼 열강의 대응과 일본 정부 내의 동향 등을 중심으로 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1930~40년대 경성제국대학에서 재직하는 동안 『近代日鮮關係の研究』²⁾라는 굵직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그 후로 한일 양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조선의 개항 문제와 관련하여 다보하시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운요호 사건을 다루어 왔다.³⁾ 하지만 운요호와 관련된 자료가 적은 만큼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의 10월 8일 공식보고서가 주요 자료로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 이 보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운요호가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한 다음 날 함장이 작성해서 해군성에 최초로 보고한 문서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불과 21년 전의 일이다. 9월 29일 보고서를 통해서 운요호 사건과 관련된 전투는 하루가 아니라 3일에 걸쳐 전개되었으며, 공식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⁴⁾ 이후 연구에서는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는 일본 측 공문서를 정밀 대조하고, 보고가 실려 있는 용지의 양식까지 검토하면서 정황상 공부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보아소나드의 법률 자문을 받아 문서를 조작하는데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⁵⁾ 최근 「조일수호조규」를 재조명한 특집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군함 파견을 상실했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사건을 사주하고, 당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정권의 수뇌부가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하면서 벌어진 일종의 도박이자 쇼로 평가하기도 했다.⁶⁾ 최근 연구에서는 운요호 함장 개인의 일탈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수뇌부가 사건 발생과 문서 조작에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공개되고 있는 문서 원본을 토대로 천착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함장의 최초 보고서가 실려 있는 『明治八孟春雲揚朝鮮回航記事』에 같이 들어 있는 「朝鮮國回航雜誌」란 항해일지를 주목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운요호의 항적(航跡)을 규명하는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⁷⁾ 다만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수록 기사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운요호 활동을 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노우에 함장의 공식보고서대로 과연 전투가 하루에 벌어졌는가에 대해 다보하시가 1940년 그의 연구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한 면이 많으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⁸⁾ 하지만 이미 다보하시가 그의 저서를 출간하기 3년 전에 운요호 사건을 다루면서 3일

2)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朝鮮總督府中樞院.

3) 운요호 사건과 관련된 조일 양국의 연구성과와 동향은 다음 연구의 서론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김흥수, 2009, 「운요호사건과 이토 히로부미」, 『韓日關係史研究』33.

4) 이태진, 2002, 「운양호(雲揚號) 사건의 진상 - 사건 경위와 일본국기 게양설의 진위 -」, 최승희교수 정년기념논문간행위원회 편, 『조선의 정치와 사회』, 태학사;鈴木淳, 2002, 「『雲揚』艦長井上良馨の明治八年九月二九日付け江華島事件報告書」, 『史學雜誌』111卷 12號.

5) 김흥수, 앞의 논문.

6) 김종학, 2016, 「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역사비평』114.

7) 金光男, 2007, 「雲揚号事件をめぐる一考察」,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社会科学論集』43, 茨城大学人文学部.

8) 田保橋潔, 앞의 책, 409쪽 각주 4번.

에 걸쳐 전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다룬 연구가 있었다. 당시 보성전문학교에 재직 중이던 와타나베 가쓰미(渡邊勝美)는 1937년 학교에서 발행하던 학회지 『普專學會論集』 3권에 「朝鮮開國外交史」라는 제목으로 57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논문을 실었다. 이 연구는 4년 후 책자 형태로 출간되었다.⁹⁾ 이 책의 제2편 제1장의 제목이 「日本軍艦雲揚號砲擊事件」으로 7쪽의 분량을 할애하여 운요호 사건을 다루고 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사건이 발생한 경과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저서의 미주를 통해 전거를 살펴보면 「雲揚艦長海軍少佐井上良馨復命書」라는 자료와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가 1902년 발간한 저서 『明治外交要錄』를 활용하였다.¹⁰⁾ 다보하시보다 3년 빠른 시점에 이미 운요호 사건이 3일에 걸쳐 벌어진 사건임을 밝힌 연구와 전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운요호의 조선 도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당대 자료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많은 연구에서 운요호사건을 다루어 사건의 전개와 정치적 배경, 국제환경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시 운요호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출발한다. 운요호 사건은 1875년 시점부터 조작된 공식보고서에 적혀 있는 대로 과연 하루에 발생한 사건으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는가? 메이지(明治) 시기의 신문과 출판물에서 운요호 사건이 3일에 걸쳐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사례는 없었는가?

이 의문을 해결하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자료가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1875년 당시 간행된 일본 측 신문기사에서 운요호가 조선 연안에서 벌인 정탐 활동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朝野新聞』이고, 다른 하나는 『東京日日新聞』이다. 전자에 수록된 기사는 운요호에 탑승하여 전투에 참가했던 포병이 사건의 경과를 가족에게 알린 편지를 게재한 것이다. 이노우에 함장의 보고서 이외에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朝野新聞』 기사에는 운요호가 제1차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시기에 경상도 영일현에 들러 지방관과 문답을 한 기록도 실려 있다. 『東京日日新聞』은 1875년 10월 초부터 ‘조선신보(朝鮮新報)’라는 연재 코너를 개설하여 운요호의 조선 내 동향을 8회에 걸쳐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운요호에 승선하였던 가와무라 데루히데(川村煥秀)가 작성한 기록을 입수하여 게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연재 기사를 신속하게 책자 형태로 편집하고, 삽화 등을 넣어서 간행한 출판물도 1875년 10월 15일에 나왔을 정도였다. 『朝鮮軍記』가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 책을 간행한 편집자는 다다 나오쓰구(多田直繩)였다.¹¹⁾ 운요호의 나가사키 귀환이 이해 9월 28일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약 보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대중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포된 출판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1887년 발간된 책자로 『繪本明治太平記大全』에서도 운요호 사건 당시의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문기사와 출판물은 1875년 당시 운요호가 조선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벌인 정탐 활동의 실태, 3일 간에 걸친 강화도·영종도 침입과 공격 양상, 이노우에 함장을 비롯한 승조 인원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조선 인식을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이 자료들과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된 『明治八孟春雲揚朝鮮回航記事』의 수록 기사를 교차로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기 이전 운요호를 중심으로 전개된 정보 수집 활동과 조선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운요호(雲揚艦)의 1차 조선 도항과 동해안 정탐 활동

9) 渡邊勝美, 1941, 『朝鮮開國外交史研究』, 京城: 東光堂書店.

10) 渡邊勝美, 위의 책, 527쪽.

11) 多田直繩 輯, 1875, 『朝鮮軍記』, 東京: 續文社.

1875년 4월 말 조선에 파견되었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를 귀국시키면서 조일 간 교섭의 정체 국면에 타개하기 위해 군함을 조선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정부는 ‘조선국 해로(海路)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운요호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운요호는 5월 10일 시나가와(品川)에서 출항하였다. 효고(兵庫)와 모지(門司), 요부코(呼子)와 가라쓰(唐津)를 거쳐 쓰시마 이즈하라(巖原)에 들른 운요호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이곳에서 체류하였다.¹²⁾ 5월 25일 부산에 도착한 운요호는 7월 1일 나가사키(長崎)로 귀환할 때까지 조선 연해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¹³⁾ 함선에는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함장을 비롯하여 전체 76명이 승선하였다. 6월 12일에는 다이니테이보호(第二丁卯號)가 부산에 입항하였다. 이후 두 선박은 조선 연안을 측량하면서 정보를 수집해 나갔다. 이렇게 조선 해역으로 자국 군함을 파견한 것을 두고 당시 나가사키 지역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수개월 안에 조선과 쟁단을 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풍설을 언론이 포착하여 보도할 정도였다.¹⁴⁾ 조선으로의 군함 파견을 두고 지역 민심에서도 조만간 사단이 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현지 일본 공관에서 근무 중이던 우라세 유타카(浦瀬裕) 서기생도 운요호의 도래로 ‘성원(聲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하였다.¹⁵⁾ 이러한 가운데 운요호가 경상도 영일현(迎日縣)에 들렀을 때 지방관이 문정하러 나와 필담을 나눈 기록이 투서 형식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¹⁶⁾ 이 내용을 투고한 자는 나가사키 에도마치(江戸町)에 사는 ‘耕田豊’라고 적혀 있다. 1차 도한 당시 운요호가 조선 연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당대의 기록인 만큼,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¹⁷⁾ 운요호에서 작성한 항해 일지를 제외한다면 일본 언론을 통해 가장 이른 시기에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으로 보인다.¹⁸⁾

이 기사에서는 도착 날짜가 ‘6월 17일’, 문정 날짜가 ‘6월 18일’로 기재되어 있다. 6월 20일 부산을 출항한 후 동해안을 따라 영흥만까지 올라갔다가 29일 부산으로 돌아왔다는 「朝鮮國回航雜誌」 기사 내용까지 아울러서 본다면 투서에서 날짜 표기상 ‘卅’자를 ‘十’자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사에 나오는 17일은 ‘27일’, 18일은 ‘28일’로 보아야 이곳 일정을 마친 다음 곧바로 부산에 도착하는 일정에 부합한다.

운요호는 ‘조선국 동해안 연구로 순항할 것을 기도’하면서 6월 20일 오전 0시 35분에 부산에서 출항하였고, 21일 함경도 지역에 도착하였다. 22일 영흥부의 ‘라자레프 항’, 즉 원산에 도착하였다. 동해안에서 ‘부산 다음의 좋은 항구’로 “유사시에 우리가 취한다면 유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항만과 하천의 측량, 지리와 토지 등의 풍토 조사 등을 정탐하도록 사관들을 물에 파견하였다. 운요호의 접근을 보고 몰려든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복장을 구경하고, 연초를 비롯한 물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여기에 건면을 던져주자 이것을 주으려고 몰려든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고, 운요호 승조원들은 이들이 “우매하고 비열하며 추하다”면서 조소하였다. 또한 “토지의 불결함과 인민의 나태함, 기타 모습이 실로 야만(野蠻)의 기풍”을 면하지 못한다고까지 기술하였다. 이들이 상륙하자 조선 지방관이 문정을 하러 나왔고, 이들은

12) 「朝鮮新報 第一」 『東京日日新聞』 1875년 10월 5일 3면 1단 ; 『朝鮮軍記』, 5쪽.

13) 田保橋潔, 앞의 책, 396~397쪽.

14) 「朝鮮と戰鬥將に起らんとす」 『朝野新聞』 1875년 7월 17일, 2면 4단 海外新報.

15) 『日本外交文書』 卷8, #36 附記, 94쪽.

16) 『朝野新聞』 1875년 8월 12일, 3면 2단 「投書」.

17) 다보하시는 운요호가 6월 20일 부산에서 출항하여 동해안으로 북상, 함경도 영흥만에 들렀다가 영일만을 거쳐 29일 부산에 도착한 후 7월 1일 나가사키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무슨 자료를 참고하여 운요호의 항해 일정을 서술했는지 전거를 밝히지는 않았다(田保橋潔, 앞의 책, 397쪽).

18) 「朝鮮國回航雜誌」 『明治八孟春雲揚朝鮮回航記事』(日本 防衛省 防衛研究所 所藏).

간단하게 필담을 하였다. 조선 관리는 어느 나라 함선으로, 이곳에 왜 왔는지를 물었다. 운요호 관계자는 일본 군함으로, 외국에 파견한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을 순항하는 중으로, 조금도 의심할 것은 없다고 답하였다. 운요호에서는 부산항에서 준비해 온 조선 동전을 사용하여 정어리 등의 생선을 구매하려 했으나, 조선인들은 연초와 맛교환하기를 원하였다고 한다. 하천 등을 측량하는 작업을 마친 후, 운요호는 6월 25일 오후 2시 넘어 원산항에서 출항하였다.¹⁹⁾

운요호는 6월 27일 오후 5시 무렵에 영일만에 도착했으며, 다음날 아침 9시 사관 2~3명이 상륙했다.²⁰⁾ 원산항과 마찬가지로 영일만에서도 유사시 병력 주둔에 편리함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서 사관들을 상륙시켜 정탐 활동을 벌이도록 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을 맞아 문정을 나온 조선 지방관은 영일현감(迎日縣監) 김명구(金命求)였다. 그는 경주진관 병마절제도위(兼慶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겸하고 있었다. 운요호에서는 ‘측량 목적’으로 상륙했다고는 하나, 조선 입장에서는 엄연히 이양선을 탄 선박에서 병력이 당도했던 만큼 이를 경계하면서 병력 1천명 정도를 이끌고 해안가로 나왔다. 이들이 상륙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조선 측은 백사장에 막을 설치하였다. 조일 간 문답은 오후 2시 무렵부터 진행되었다.²¹⁾

양측은 먼저 각각을 대표하는 관리의 이름과 직위부터 확인하였다. 운요호 함장은 자신의 직책이 해군 좌관(海軍佐官)으로, 성은 후지와라(藤原)이고 이름은 요시카(良馨)라고 소개했다. 조선 관리는 운요호가 연고도 없이 이곳에 와서 정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일본 사관은 “대일본제국 군함은 동맹 제국과 외국에 파견하여 아국(我國)의 인민을 보호하려고 각국을 순항하는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답했다. 아울러 군함은 각국의 해상을 항해하면서 가끔은 항구에 정박하기도 한다고 했다. 타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각국 항구 안에 정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정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는 말이었다. 아직 조선과 정식 조약을 체결한 국가도 아닌 상황에서 다른 체결국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연해 측량과 정박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아직 국제법상의 규정까지 논거로 꺼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함선에 적재한 물건들을 조선 관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묻는 가운데, 문정 중 조선 측 부관이 좋은 술이 있으면 달라고 말을 꺼냈다가 양측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것이 합당한 예인지, 분명하게 공사를 구분하면서 나오는 것인지를 두고 일본 사관 측이 따졌기 때문이다. 조선 측은 술을 요구한 관리에게 곤장을 치는 형벌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처벌하겠다고 나오자 일단 일본 측에서는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저지른 과오이니 처벌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한다고 하면서 해당 관리를 운요호 사관들 앞으로 끌고 나와서 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본 사관들이 영일현감을 누차 만류함에 따라 형벌 집행에 들어가 구타를 당하던 관리를 풀어주었다. 이를 두고 기사 투고자는 “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이처럼 치욕을 주면 실로 참기 어렵다”면서 조선인들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혹평하였다. 운요호 승선 장교도 크게 다르지

19) 원산항에 정박하면서 지역민들과 접촉한 정황은 「朝鮮國回航雜誌」 수록 기사의 내용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20) 「朝鮮國回航雜誌」 6월 28일 기사. “오전 9시 호시야마(星山) 중기관사, 쓰노다 소위, 진구지 소위보가 측량을 위해서 큰 하천을 거슬러 인가가 있는 곳에 갔다.” “사관으로 하여금 하천 안 등을 측량하기 위해서 파견하였다.”

21) 「朝鮮國回航雜誌」 6월 28일 기사는 ‘오후 1시 58분’부터라고 적혀 있다. 사관들이 어느 국가, 어느 지역 출신이며, 몇 명 정도가 왔는지를 확인하는 문정 작업이 먼저 있었다. 그 후에 영일현감이 운요호에 올라가 이노우에 함장과 본격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않은 인식을 드러냈다. 영일현감과 문정을 하러 가는 길에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든 조선인들의 '복적복적함(雜沓)'을 두고 '체제가 없다'고 보았다. 데려온 조선 병사들도 “대오가 없고 호령도 실시하지 않는다”면서 기율이 잡히지 않은 병력이라면 몇 만이 있더라도 운요호 승선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승선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²²⁾ 조선 측 병비의 허술함을 포착하면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2차 도항 당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요호가 경상도 연안에 정박하면서 조선 관리들과 접촉한 정황은 또 다른 일본 측 기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²³⁾ 지역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서술한 도착 날짜와 문정 날짜가 각각 27일과 28일로 일치하는 만큼 영일현 앞바다에 정박한 후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일본 사관들이 상륙하려 하자 조선 측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상륙을 막았다. 조선 관리는 “우리나라의 법제는 타국 관민이 몰래 상륙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만약 땀감과 물을 필요로 한다면 먼저 함선에 가서 인원과 탑재한 물건을 살펴보겠노라고 말했다.²⁴⁾ 조선 측은 문정을 하는 기본적인 대응 방식대로 해안에 나타난 일본인들에게 대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여러 척의 작은 배를 타고 함선으로 건너와 총포와 기관을 살펴보았다. 그런 가운데 한 관리가 술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정한다고 함선에 건너와 이것저것 살펴보면 조선 관리가 한 말에 ‘무례함’을 느낀 일본 측에서는 “우리 함선이 항행하여 만국으로 가는데 일찍이 정박을 금지하고 상륙을 거부하는 일은 보지 못했다. 무슨 까닭으로 귀국을 위해서 상륙을 금지하고 함내를 사열하려 하는 이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²⁵⁾ 앞서 나온 일본 사관의 발언과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문정을 위한 승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가운데 일본 함선은 어느 곳에든지 가서 정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발언이기도 했다. 이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한 조선 관리들은 일단 배에서 물러났다. 다음 날 양측은 다시 교섭을 진행하여 조선 관리들이 재차 함선으로 건너왔고, 이 때 운요호 함장이 나서서 양측 감정이 상한 것을 수습하면서 “양국의 교의(交誼)를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모쪼록 일을 잘 처리하여 영원히 이웃과의 교제(隣交)를 온전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다음에 나온 조선 측 대응이 술을 요구했던 관리를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조선 측에서 부관의 일시적인 과오에 대하여 국법에 따라 엄정하게 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본 측에서도 해당 관리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일단 문제가 되었던 상황은 매듭지어졌다. 물론 이 와중에도 운요호는 영일만 인근의 상황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마쳤기 때문에 28일 오후 6시 40분에 이곳에서 출발하였다. 민란이 발생한 울산부(蔚山府)에도 기항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어 29일 오후 3시 35분 부산항으로 복귀하였다.²⁶⁾

위에 제시한 몇 가지 기록을 교차해 보면 경상도 영일현에 정박한 운요호에서 조일 양국이

22) 「朝鮮國回航雜誌」.

23) 依田準之助 編, 1887, 『繪本明治太平記大全』, 東京: 此村欽英堂, 110~112쪽. 이 자료는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디지털라이브러리에서 열람할 수 있다.

24) 「朝鮮國回航雜誌」 6월 28일 기사. “우리들은 군관으로 명을 받들어 문정하러 왔다. 이국의 선박이 만약 와서 정박하면 곧 지방관(土主官)이 전례에 의거하여 문정을 하고 도신(道臣)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도신은 국왕께 계문(啓聞)을 한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법의 취지이다. 타국 사람이 육지에 내리도록 할 수 없음은 우리나라 국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25) 「朝鮮國回航雜誌」 6월 28일 기사. “우리 선박은 곧 군함이다. 어떻게 너희들의 점검 수색을 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바는 모두 존경을 잃은 것으로 억지일 뿐이다. 우리 군함은 각국 해양을 횡행하기 때문에 때때로 각국의 여러 항구에 닿을 내린다. 따라서 매사 너희들의 문정을 받을 겨를이 없다. 속히 떠나라.”

26) 「朝鮮國回航雜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정을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국에 유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적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기는 하다. 『朝野新聞』에 게재된 나가사키 거주인의 투고 내용으로는 필담으로 진행된 문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繪本明治太平記大』에서는 양측이 주고받은 대응 양상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두 가지 기록의 출전은 「朝鮮國回航雜誌」로, 조금씩 내용 구성이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대화 내용 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운요호 함장 이노우에가 조선 연안에 정박할 경우 지방관이 문정을 나온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朝野新聞』 투고 기사가 나간 이후 이에 대한 내용은 『東京日日新聞』 1875년 10월 초에 「朝鮮新報」라는 기사로 좀 더 자세히 소개가 되었다. 영일현감 김명구가 운요함으로 문정을 하러 건너올 때 ‘문정별포장수기(問情別砲將手旗)’와 ‘문정군관표기(問情軍官標記)’를 휴대한 수행원이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문정을 하러 온 조선인 관리 세 명에 대한 인상을 묘사하였는데, ‘조선국의 불개화(不開化)’와 관리의 ‘백치(白痴)’ 같은 모습에 대한 편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또한 술병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함장과 사관은 저들이 과대한 말을 하고 또한 예의를 잃은 데 분개하였다”는 서술까지도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²⁷⁾ 이 연재기사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朝鮮軍記』라는 책자로도 편집, 출판되었다. 영일현감과 이노우에 함장 사이의 문정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으로 소개하되, 기사에서 나온 함장과 선원들의 조선인들의 행동에 대한 ‘흥분’과 관련된 내용은 출판 과정에서 삭제한 것이 눈에 띈다. 운요함의 1차 도항과 관련하여 여러 신문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고, 출판물로까지 간행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관심도가 높았음을 시사한다.

운요호가 동해안을 측량하러 부산에서 출항하기에 앞서 훈도 현석운이 승선하여 둘러본 적이 있었다. 6월 13일 현석운은 병사들을 데리고 운요호를 방문했다. 이노우에 함장이 그를 맞이하여 선내에 탑재된 기관과 대포 등을 보여주었다. 이 때 일본 측에서는 자국 함선의 위력을 보여주지 위해서 부산에 들어와 있던 다이니테이보함을 연습상대로 삼아 총과 대포를 교차로 발사했다. 현석운을 비롯한 조선 관리들이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노우에는 훈련을 중단시키고 함내 방화훈련을 보여주었다.²⁸⁾ 일본 함대가 구비한 무기의 위력과 승선 병력이 잘 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연출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비(武備)의 엄중함을 보고 두려워한’ 조선인들이 훈련 중지를 요청하고 함선에서 내려가려던 모습을 보고 운요호 승선자들은 “실로 그 체제가 어린아이보다도 열등하여 포복절도하였다”고 하였다.²⁹⁾ 훈련 모습을 관망하고 놀란 조선인들의 모습을 두고 ‘인물에게 기상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자신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차 도항과 조선 동해안 정탐 활동을 마치고 나가사키로 복귀한 이노우에 함장은 1875년 7월 1일자로 해군 지휘부에 활동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일본 측의 일방적인 복제 개혁에 따라 응접을 거부한 조선 측의 행위를 두고 이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일본의 ‘국위(國威)’를 훼손한 일이며, “수백 년 이래 불개화(不開化)한 습속으로 실제로는 완고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가 가혹하여 인민이 심히 괴로워하여 위를 원망”하는 상황에서 울산부의 민란 발생 같은 내환(內患)까지 발생하였

27) 「朝鮮新報 第四」 『東京日日新聞』 1875년 10월 8일.

28) 『朝鮮軍記』, 13~24쪽 ; 依田準之助 編, 앞의 책, 100쪽 ; 田保橋潔, 앞의 책, 397쪽. 훈도 일행이 전투 훈련을 보고 “양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낮빛이 갑자기 변한”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 모습을 삽화로까지 실어서 소개한 자료는 『朝鮮軍記』이다.

29) 「朝鮮國回航雜誌」 6월 13일 기사.

으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로 보았다. 따라서 이노우에는 “필히 조속하게 출병할 것을 희망”한다면서 야간에라도 병력 동원의 지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³⁰⁾ 운요호의 2차 도항에서 강화도 인근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려는 이노우에의 상황 판단은 1차 도항을 통해서 이미 명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운요호의 2차 조선 도항과 강화도·영종도 일대 공격

1875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조선의 동해안 일대를 측량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운요호는 서해안을 북상하여 청국 뉴장(牛莊)까지 가는 수로를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고 9월 12일 나가사키에서 출항하였다.³¹⁾ 9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도(永宗島), 항산도를 왕래하면서 공격하고, 노획물을 나누어 실은 후 9월 28일 나가사키로 돌아간 경과는 기존 연구(이태진, 스키 준)에서 이미 상세하게 정리한 바 있다. 나가사키 도착 후 다음 날 이노우에 함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존재했고, 10월 8일 공식보고서로 올라갈 때까지 내용상 많은 조작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상세히 밝혀졌다(김흥수). 여기서는 운요호의 보고서 이외에 새로운 자료를 몇 가지 추가하고, 기존에 밝혀진 내용에 기초하여 9월 12일 운요호의 출항 이후 강화도 연안에서 발생했던 조일 간 무력 충돌의 경과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자료란 기존 연구에서 분석해 온 『日本外交文書』 8권 수록 공식보고서와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자료 『明治八孟春雲揚朝鮮回航記事』³²⁾, 『公文別錄』 수록 기사는 아니다. 당시 운요호에 타고 있던 포병 스키 가이이치로(鈴木魁一郎)가 친동생에게 보낸 편지로 『朝野新聞』에 실려 있다.³³⁾ 서한 가운데 앞뒤로 약간 생략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운요호가 나가사키에서 떠난 이후의 상황은 날짜별로 기술하였고, 기존에 알려진 문서에는 없는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자료이다. 앞서 운요호의 1차 도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사 투고가 있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기도 하다.

이달(-9월, 인용자) 12일 당 항구(-나가사키, 인용자)를 출발하여 13일 고토(五島)에 도착했다. 15일 오후 1시 조선국 평안도 청산진(靑山鎭) 항구에 들어갔다. 사관이 오인하여 얇은 곳에 올라가버려 상당히 곤란했다. 6시 반 넘어서야 깊은 데로 나아가 정박하였다. 이 항구에는 인가(人家)가 상당히 있었다. 17일 오전 10시 이 항구를 출발, 19일 오후 4시 반 조선 도부(都府)의 강구(江口)에 도착했다. 이곳으로부터 도성까지 20리라고 하므로 여기서 정박하였다.³⁴⁾

30) 『朝鮮國回航雜誌』.

31) 1차 도항 때와는 달리 2차 도항 당시 운요호의 출항을 승인하는 해군성의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흥수, 앞의 논문, 240쪽.

32) 이노우에 요시가 함장의 9월 29일 보고서는 스키 준의 논문과 『近代韓國外交文書』 3권 조일수호 조규 편(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2)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1964년 4월 이토 스케마로(伊東祐磨) 아들이 방위연구소에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鈴木淳, 앞의 논문, 68쪽).

33) 『朝野新聞』 1875년 10월 13일, 2면 4단 雜錄. 스키의 경우 1876년 10월 31일 운요호가 난파되던 시점에는 승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승선 인원 75명의 생존자와 사망자 전체 명단은 다 키노(瀧野) 함장이 작성한 「雲揚艦難破ニテ始末書」를 수록하고 있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海軍省所轄軍艦雲揚艦難破諸上申控』, 16~21쪽.

34) 『朝野新聞』 1875년 10월 13일, 2면 4단 雜錄.

운요호는 9월 12일 오후 4시 나가사키에서 출항했다. 9월 29일 보고서에서는 고토 다마노 우라에 기착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는데, 스즈키 편지에는 13일 도착했던 것으로 나온다. 여기서 출발하여 다음으로 향한 곳이 평안도 청산진이었다. 기존 문서에서는 15일부터 17일 사이 운요호의 항적(航跡)이 나오지 않으며, 강화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닻을 내린 19일부터 기사가 시작한다. 황해 북쪽 방향으로 항행 방향을 설정하고 평안도(平安道) 연안까지 가서 일단 정박한 가운데 측량 활동부터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산진에서 17일 아침에 출발한 후 운요호가 월미도 앞바다에 도착한 시각은 9월 29일 보고서 시각과 같다.

20일 이곳을 출발, 항구로부터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정박했다. 이날 함장을 비롯하여 사관과 해병, 수화부(水火夫)가 같이 보트를 타고 3리 정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근처 해안에 성으로 생각되는 곳이 세 군데 있었다. 그 포대로부터 우리 보트를 향해 갑자기 크고 작은 포를 난발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소총을 쥐고 여기에 응전하였으나 그 기세를 당해내기는 어려웠다. 다행히도 본함까지 무사히 퇴각했다.³⁵⁾

20일은 이노우에 함장을 비롯하여 사관들과 병력이 보트를 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 날이다. 초지진 포대를 거쳐 올라가려다가 조선 측에서 공격을 받게 된 시간대별 상황은 29일 보고서 서술이 상세한 편이다. 조선 측에서는 무단으로 영내에 들어온 선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발포했다. 보트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던 일본 군인들은 휴대해 간 소총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성으로 생각되는 세 군데란 29일 보고서에서 각각 제1포대, 제2포대, 제3포대라고 기재했던 곳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측의 맹렬한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함선으로 무사히 퇴각했다는 내용은 일치한다. 이들의 복귀 시간은 저녁 9시였다.

21일 오전 7시 함 내에 일동이 정렬했다. 함장이 바로 무리를 향하여 물었다.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무리가 모두 흥분하여 말했다. “저들은 먼저 신문하지 않고 제멋대로 우리 배에 발포했다. 만약 이대로 퇴각한다면 정말로 일개 함선으로서는 큰 치욕이다. 오히려 본 함선이 진격하여 저들에게 보복하자.” 함장이 곧 명령을 내려 곧바로 저들 포대를 향하여 본 함선이 13~14町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나아갔다. 저들 역시 맹렬하게 크고 작은 대포를 난사했다. 우리 함선에서는 100斤, 40斤, 20斤 등의 포탄을 발사했다. 하지만 적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 따라서 함선이 나아가 상륙하려고 했으나, 근처 바다 수심이 얕아서 여의치 않았다. 오후 2시 넘어서 30町 정도 물러나 보트를 타고 상륙하여 포대를 접수했다. 인가와 진영에 불을 지른 후 본영으로 복귀했다. 4시 경기도 영종성(永宗城)에서 2리 떨어진 앞바다에 정박했다.³⁶⁾ (밑줄은 인용자)

조일 양국 병력이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것은 21일이었다. 29일 보고서에는 새벽 4시부터 전원이 기상해 있었고 8시에 전원 집합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기록에 따르면 승조원이 갑판에 정렬한 시간은 이보다 한 시간 가량 빨랐다. 이노우에 함장의 최초 보고와 달리 국기를 게양했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함장의 발언을 놓고 보더라도 저쪽에서 먼저 발포했는데 이대로 퇴각해 버리면 ‘일개 함선’으로서는 치욕이기 때문에 보복해야 한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내용이 기사 게재일로부터 이틀 후 간행된 『朝鮮軍記』에도 거의 그대로

35) 『朝野新聞』 1875년 10월 13일, 2면 4단 雜錄.

36) 위의 기사.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³⁷⁾ 수록 기사의 저본이라 할 수 있는 『東京日日新聞』 10월 13일 기사에는 없던 내용으로³⁸⁾, 출판 과정에서 편집자가 『朝野新聞』 보도기사를 참고하여 추가해 넣었을 가능성을 있다.

보고서에서 ‘국가의 치욕(國辱)’이라고까지 기재했던 것과 달리, 현장에 있던 병사의 기록에서는 국기와 국가를 강조하는 대목이 기록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국에 보고해야 하는 함장 입장과 선내에서 보복해야 한다는 흥분을 기록한 병사 사이의 입장이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로 선내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노우에 함장은 조선 측에 보복하라는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다. 초지진의 약 1.4~1.5 킬로미터 앞까지 나아간 운요호는 20파운드, 40파운드, 110파운드 포탄을 발사했다.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먼저 40파운드 포를 시험 발사하자 조선 측에서 대응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때 조선 측이 사용한 대포는 대완구(大碗口)로³⁹⁾, 사정거리가 약 700~800미터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 바다로 떨어졌다. 발사 후 탄약을 장전하는 데에도 수십 분이 걸렸기 때문에 일본 측에 피해를 주지는 못했다. 오후 2시 넘어서(보고서로는 2시 40분) 일본 병력은 보트를 타고 향산도(보고서의 제2포대)에 상륙하여 포대를 점령하고 불을 질렀다. 그 후 이들은 함선으로 복귀했다.

22일 오전 6시 넘어 영종성의 동남쪽에 가서 성으로부터 14町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섬에 도착했다. 여기서 점차 나아가 10町 정도의 거리에서 갑자기 발포하였는데, 적이 크게 패하여 도망치는 기색이 현저했다. 우리 함선이 차츰 앞으로 나아갔고, 보트를 풀어 상륙했다. 사관 오가사와라(小笠原) 중위, 쓰노다(角田) 소위, 진구지(神宮司) 소위, 야부치(八淵) 소위, 포병 병사 6명과 수화부(水火夫)까지 도합 31인이 성문에 접근했다. 성의 좌우에서 비가 오듯이 소총을 난사했다. 보병 오시게 아무개(大重某)를 비롯하여 일당은 필사적으로 근처 석벽을 올라갔고, 결국 성에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니 적병이 크게 낭패하여 패주했다. 오전 9시 무렵 성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대포 36문, 기타 소총과 도검, 깃발 등을 나누어 포획하고 함선으로 가져왔다. 우리 병사는 전사가 한 명, 부상 한 명뿐이었다. 저들 사망자는 80~90명일 것이다.⁴⁰⁾

셋째 날인 22일 아침 운요호는 영종도로 향했다. 아침 6시 넘어 영종도 동남쪽으로 이동했고, 성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발포하면서 전투를 개시했다. 보고서에서 6시 16분에 무기를 장전하고 전투 준비에 들어갔고 1시간 후에 포대 전방 약 900미터 앞까지 전진하여 40파운드 포를 쏘기 시작했다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보트에서 병력이 상륙한 후에는 공성전이 벌어졌다. 전투에 돌입한 오가사와라, 쓰노다, 진구지 소위의 이름은 동일하나, 전체 전투 동원 인원수에는 22명과 31명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⁴¹⁾

조선 병사들은 조총을 쏘면서 일본군이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

37) 『朝鮮軍記』 67쪽. 전투 둘째 날 아침 함장의 선동 발언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날짜를 ‘20일’로 혼동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38) 『東京日日新聞』 1875년 10월 13일 3면 3단.

39) 姜在彦, 1975, 『江華島事件前後』, 『季刊三千里』 3, 東京: 三千里社, 60쪽.

40) 『朝野新聞』 1875년 10월 13일, 2면 4단 雜錄.

41) 『朝鮮軍記』는 사관과 해병, 수부를 합쳐 32명이 영종성 근처에 상륙하였고, 오가사와라 중위와 쓰노다 소위 등이 선봉에 서서 성내에 진입했다고 기술하였다. 전투에 참여한 위관급 장교 이름은 『東京日日新聞』 1875년 10월 13일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지만 이들이 성벽을 타고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29일 보고서에는 주로 동문과 북문, 서문으로 각각 진격한 장교들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으나, 스즈키 기록에서는 보병 한 명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간 정황까지 적혀 있다. 병사 입장에서 인상적인 동료의 전투 행동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성은 함락되었고, 전투에 참여했던 조선 병력은 사방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스즈키 기록에서는 크게 낭패하여 패주했다고만 간단히 적혀 있다.⁴²⁾ 하지만 29일 보고서에서는 살기 위해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거나, 바위 사이로 몸을 숨긴 조선 병사들의 다급한 도피 모습을 두고 “배고픈 돼지 무리가 광야를 달리는 것과 같았다”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 노획한 대포 36문, 전사자 1명과 부상자 1명 등의 전투 결과는 두 기록이 일치한다. 스즈키는 전투 중에 조선인들이 80~90명 정도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는 사망자 35명 정도, 생포한 인원 5명 등으로 적혀 있다. 아울러 동문 앞에 있는 바위 정상에다가 전투 승리의 상징으로 일본 국기를 꽂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고서 안에서만 보이는 내용이다. 전투에 참여한 병사 입장에서 전투의 경과와 승리 여부, 전리품 취득을 중시하여 그것 중심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노우에 함장의 보고서에서만 두 차례 거론되는 ‘국기’가 스즈키 기록에서는 국가의 상징으로 한 번도 등장하는 일조차 없다는 점은 주목해 볼 대목이다. 이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할 때까지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 가운데 하나가 운요호가 전투 당시 일본 국기를 게양하고 있었는가, 조선 측이 이를 인식했는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 문제와 깊숙이 결부되어 있었고,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공격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과도 관련이 있었다.⁴³⁾ 의도적으로 보고서 작성 당시에 국기와 관련된 사항을 짚어 넣은 것인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자료의 발굴을 통해 규명이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스즈키는 전투 경과를 서술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투 참여와 공적을 동생에게 알렸다. 그에 따르면 5명을 토벌했고, 1명을 생포했다고 한다. 그는 9월 22일 영종성을 함락시킨 것을 두고 8년 전인 1868년 보신전쟁(戊辰戰爭)에 참가하여 음력 8월 23일 아이즈번(会津藩)의 와카마쓰성(若松城)을 함락시켰던 경험을 떠올렸다. 음력과 양력을 정확하게 환산해 보면 물론

42) 일본군이 인가에 불을 지르고, 운요호에서 지원 포격을 하면서 조선 병사들은 서문 쪽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이곳도 일본군 6명이 문 바깥의 만세교(萬世橋)를 절단해서 여기로 도망칠 수 없었다고 한다.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드는 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24명이 사망하였고, 만조에 익사한 자들도 적지 않았으며, 항산도 쪽으로 도주한 자는 6~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일본군에 붙잡힌 조선 병사는 12명으로, 일본 측은 이들을 동원하여 노획물을 함선에 운반하도록 하였다. 『東京日日新聞』 1875년 10월 13일 3면 3단 ; 『朝鮮軍記』, 69~72쪽.

43) 보트를 타고 이노우에 함장 일행이 3해리 이내의 조선 영해에 진입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사실 자체도 문제이기는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후대의 회고이기는 하나 이노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선행연구에서도 주목하여 소개한 내용이기도 하다(김종학, 앞의 논문, 29쪽 ; 海軍歴史保存會 編, 『日本海軍史』 第1卷, 東京: 海軍歴史保存會, 1995, 225~226쪽). “물에서 3해리(浬) 바깥이라면 공해(公海)겠지만, 그 이내 특히 하천 안으로 들어가 이틀(二日)이나 있었다고 한다면 타국의 영해에 들어가 전쟁을 한 것이 되므로, 국제공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나는 3해리 이내가 영해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공법(國際公法)에서 석탄과 물(炭水)이 부족할 때는 상황에 따라 어느 곳의 항만을 가더라도 무방하다고 했다. 나도 이번에는 맑은 물(清水)을 찾으러 갔던 것인데, 별달리 문제가 될 점은 없었다고 생각했다.”(『井上元帥談』, 藤田定市 編, 『海軍逸話集』 第1輯, 東京: 財團法人有終會, 1930, 13쪽). 『日本海軍史』의 경우 이노우에 함장이 보트를 타고 엄하를 거슬러 올라간 행위는 당대의 국제법 조관을 놓고 보더라도 ‘위법’하다면서도 “적극적인 ‘도발’ 의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실령 위법한 행동을 했더라도 “조선 측이 경고 없이 대포를 쏜 것은 온당한 제지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사건 발생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海軍歴史保存會 編, 같은 책, 226쪽). 본문 내에서 다루었지만 1차 도한 당시 조선 지방관과의 문정 경험, 2차 도한을 하기 직전 이노우에 함장이 말하고 다닌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날짜상으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성 두 곳을 함락시키는 전투에 참여했던 흔치 않은 경험을 했던 만큼 스즈키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던 것이다.

운요호는 다음날까지 영종성에 남아 있던 전리품을 수습한 후, 24일에는 급수까지 마친 다음 조선 해역을 떠났다. 나가사키에는 9월 28일 오전 11시가 되기 전에 도착하였고⁴⁴⁾, 곧바로 사건의 전말을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 해군대보에게 전보로 알렸다. 29일에는 이달 12일 출항부터 28일 귀항할 때까지의 사건 진행 일지와 포획물품 목록을 정리하고, 옴하와 영종도 도면을 첨부하여 보고했다.⁴⁵⁾ 이후 내부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하는 과정을 거쳐 10월 8일 보고서 개찬을 끝내고 다음 날 이것을 전달받은 가와무라 해군대보가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태정대신에게 상신했다. 9월 29일 보고서와 10월 8일 보고서 간의 내용상 차이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公文別錄』과 『公文錄』 그리고 『伊藤博文文書』에 수록되어 있는 함장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상세히 검토한 적이 있다.⁴⁶⁾ 보고서가 개찬되는 사이 10월 3일자 「官令」을 통해 운요호가 조선 강화도 근처를 운항하다가 “뜻하지 않게 저들이 발포하였으므로, 상륙하여 그곳의 이유를 심문하려 했는데, 저들의 발포가 점차 격렬해졌기 때문에 부득이 함선에서도 발포하였다. 다음 날 결국 상륙하여 포대를 접수하고 병기를 나누어 담았다”는 내용을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 이름으로 고시하였다.⁴⁷⁾ 처음에는 이틀 간 포격과 대응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고시한 후, 다시 하루에 발생한 일로 조작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찬된 보고서가 태정대신에게 올라간 같은 날 『朝野新聞』에는 이노우에 함장의 도쿄 도착 소식과 더불어 운요호가 조선에서 당한 일을 상세히 보도하는 기사가 실렸다. 나가사키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던 영자신문 라이징선(The Rising Sun)에 게재된 기사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 보고된 공식보고서에서 운요호가 조선 연해에서 포격을 받은 후 하루 동안 전투를 벌인 것으로 정리된 데 반해, 이 기사는 운요호가 나가사키로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나기 전에 9월 20일부터 22일에 걸쳐 전투를 벌였던 정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했다.

화요일 새벽(-9월 28일, 인용자)에 일본군함 운요호는 조선에서 귀착(歸着)했다. 우리들이 나가사키 신문(長崎新聞)에 의거하여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달 20일 저들 나라 해안을 측량할 때 조선 포대에서 운요호를 포격했다. 따라서 이 함선은 곧바로 여기에 응전하여 쌍방이 대략 30분 가량 발포한 후 중단했다. 다음날 해병을 상륙시켜 포대 하나를 습격하였는데, 저들로부터 포격이 특히 맹렬하여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 다음날(즉 22일-인용자) 해병이 다시 상륙하여 위의 포대를 포격했다. 이번에는 어려움 없이 이곳을 탈취하였고, 포대 안에 있는 진영(陣營)과 그 근방의 가옥에 불을 질렀다. 전투가 끝난 후 그 지역을 조사하니 조선인 30인의 사체가 있었다. 그리고 기타 다수는 바다 안으로 뛰어 들어 익사했다. 포로가 된 자는 10명, 대포 36문, 선조총 10정과 그 외의 제반 물품을 나누어 포획했다. 일본인은 사망자 1명이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것은 라이징선, 즉 나가사키에서 가로쓰기로 발행되는 신문(長崎橫文新聞)에 기재된 내용이다.⁴⁸⁾ (밑줄은 인용자)

44) 『東京日日新聞』과 『朝鮮軍記』에는 모두 ‘29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노우에 함장의 보고서는 ‘28일 오전 10시 49분’이라고 하였으므로 ‘29일’은 일자 기술의 오류이다.

45) 1875년 9월 29일 雲揚艦長 海軍少佐 井上良馨 報告書, 『明治八孟春雲揚朝鮮回航記事』.

46) 김흥수, 앞의 논문.

47) 「官令」 『読売新聞』 1875년 10월 5일 1면 1단.

48) 「朝鮮戰爭の景況少しく詳なる報を左に記す」 『朝野新聞』 1875년 10월 9일, 1면 2단.

기사는 윤요호가 9월 20일 조선 ‘해안을 측량’하다가 조선 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았기 때문에 응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측량’은 나중에 일본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전신 암호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탐수(探水)’로 문구를 바꾸었다.⁴⁹⁾ 첫째 날 조일 양국의 응전 시간이 ‘30분 가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9일 보고서에서 초지진 포대(제3포대)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30분에 걸쳐 조일 양군이 응사했다는 시간과도 일치한다.⁵⁰⁾ 셋째 날 전투가 종료된 후 ‘조선인 30인의 사체’와 ‘포로가 된 자 10명’이 있다고 했는데, 29일 보고서에서 35명 정도 사망자와 12명 정도 생포자가 있었다고 조사했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대포 36문 포획,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29일 이노우에 소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축약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용상 일치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나가사키 지역 영자신문 보도 기사를 번역하여 도쿄에서 발간되는 『朝野新聞』에서 10월 9일 기사로 내보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다루었던 승조원 스즈키의 서한이 4일 후 같은 신문에 실렸다는 점 등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도 조선에서 3일간 전투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⁵¹⁾ 정부 기관지 성격이 짙은 『東京日日新聞』에 윤요호의 조선 도항과 관련된 기사가 10월 초중순에 연재되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윤요호 피격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일본 국내여론은 ‘정한(征韓)’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나누어져 ‘조야의 논의가 분분’했다.⁵²⁾ 『橫濱毎日新聞』은 정한론, 『東京日日新聞』과 『朝野新聞』 등은 비정한론(非征韓論)을 주장하며 격론을 벌였다. 어느 쪽이든 조선을 ‘무례한 야만국’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⁵³⁾ 일본정부가 서구 열강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외선전도 윤요호가 조선으로부터 포격을 받았기 때문에 반격에 나섰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노우에 함장의 조작된 보고서는 대내외적인 여론전에 적극 활용되었다. 3일에 걸친 조선 연안 공격과 노략 행위가 내포한 국제법 위반의 문제보다도, 자국의 함선이 조선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므로, 여기에 대응하여 조선을 어떻게 응징(征韓)을 해야 할지 여부로 일본 내부의 여론 방향을 호도해 갔던 것이다.

4. 나가며

본 발표에서는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는 하나의 계기였던 윤요호의 조선 파견과 관련된 활동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조선의 해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선의 연안에 두 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윤요호의 2차 도항시 강화도에서 무력 도발을 전개한 과정, 이노우에 요시가 함장의 보고서 조작, 일본 국내 정치의 상황에 착목하여 윤요

49) 김흥수, 앞의 논문, 259~260쪽.

50) 『明治八孟春雲揚朝鮮回航記事』 1875년 9월 20일 기사.

51) 윤요호가 20일에 조선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 반격에 나서 22일 영종성을 점령할 때까지 3일간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서술은 1880년대와 1900년대 일본 국내에서 발간된 서적에서도 확인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하루에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공식보고서를 조작하고 대외적으로 이것을 널리 활용하여 윤요호의 대응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즈키 준도 『郵便報知新聞』 10월 9일에 ‘항설(巷說)’로 9월 29일자 보고서 개요가 유포된 적이 있다는 점을 짧게 지적한 바 있다(鈴木淳, 앞의 논문, 70쪽). 와타나베 가쓰미의 연구는 오가와 헤이키치의 책 내용을 전거로 제시하였다. 依田準之助 編, 앞의 책, 113~114쪽; 小川平吉, 1902, 『明治外交要録』, 東京: 青木嵩山堂, 89~90쪽.

52)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1975, 『保古飛呂比』 6,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300쪽.

53) 北原スマ子, 2012, 『江華條約の締結』, 趙景達 編, 『近代日朝關係史』, 東京: 有志社, 133쪽.

회의 동향을 검토해 왔다. 여기서는 운요호가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 생산된 기록, 신문 보도, 운요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간행된 출판물 등의 기록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운요호의 조선 연안 정탐 활동, 승조 인원들이 조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운요호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운요호가 9월 20일부터 3일에 걸쳐 강화도와 영종도 일대를 공격하고, 노획물을 수거하여 나가사키로 복귀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도항 당시 함경도 원산 지역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운요호는 경상도 영일만 지역에도 잠시 들렀다. 이때 조선 지방관이 무슨 목적으로 내항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정에 나온다는 것을 이노우에 함장은 체험하였다. 또한 함장과 인솔한 일본군 병력은 조선의 지방민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조선보다 자신들이 문명 단계가 우위에 있다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인식을 가감 없이 자신들의 기록에 남겼다. 조선의 '무비'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이노우에 함장은 무력을 동원한다면 일본의 '무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1차 도항에서 내렸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는 해군 지휘부에 신속한 병력 파견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상신하였다. 2차 도항에서 강화도 연안 지역에서 보트를 타고 염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선 측을 도발한 행위는 이미 선행한 정탐 활동과 경험에 기반하여 충분히 조선군을 상대할 만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운요호의 조선 정탐 활동과 연안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은 이후 다른 군함의 항해를 통해서 이어진다. 운요호에 승선해 활동하던 측량 담당 장교들은 조선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76년 10월 31일 미에현(三重縣) 앞바다에서 운요호가 침몰하면서 익사하였다. 이후 조선 연안 측량은 대리공사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을 호위, 수송하였던 다카오마루(高雄丸), 모순함(孟春艦), 아마기함(天城艦) 등이 담당하였다. 동해와 황해, 남해를 오가면서 개항에 적합한 지역을 확인하는 가운데, 향후 군사 진출에 적합한 지역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간다. 또한 참모본부에서 파견된 가이즈 미쓰오(海津三雄) 같은 위관급 장교들도 조선 내지 곳곳을 드나들면서 정탐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보 수집의 결과물은 1888년 『朝鮮地誌略』의 간행과 조선 연안에 대한 각종 해도 작성으로 이어졌다. 본 발표에서는 1875년 운요호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 연안 파견과 정탐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그쳤다. 1880년대 이후 정탐 활동을 벌이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간 육해군 장교들의 활동 양상을 정교하게 추적, 규명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⁵⁴⁾

54) 현재 조선에 파견된 일본인들의 정탐 활동과 관련해서는 최혜주의 여러 연구논문과 저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군의 '외방도(外邦圖)' 작성 활동과 관련해서는 남영우, 고바야시 시게루(小林茂) 등의 연구, 일본 해군의 한일 연안 측량과 관련해서는 한철호의 연구 등이 축적되어 있다. 다만,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개별 인물과 한국과의 관계, 정보 수집 결과물의 소재 파악 등에서는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으므로, 자료 발굴 등이 향후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토론】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 시기 일본의 조선 정보 수집과 인식」 토론문

최보영(용인대)

본 연구는 1875년 운요호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정보 수집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활동 과정이 담긴 기록에 나타난 조선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운요호 파견 당시 기록과 신문보도 및 운요호 사건 직후 간행된 출판물을 광범하게 수집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노고 끝에 운요호사건의 구체적인 전말과 실상 및 긴박했던 교전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운요호 ‘승조원’들의 조선인식도 부분적으로 복원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발표자는 자료에 근거해 기존 연구에서 천착하지 못했던 연구공백을 메우며 꾸준히 성과를 쌓아가는 중견 연구자로 본 연구 역시 꼼꼼하고 치밀한 자료 분석이 돋보이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 크게 지적할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본 발표가 향후 연구논문으로 게재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만 언급해 두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 조선 정보 수집과 운요호의 측량활동 및 도발.

운요호의 파견과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지하듯 조선연안에 대한 측량활동이 주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활동 자체가 조선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표문만으로는 직관적인 이해되지는 않는다.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특히 강화도사건의 도발 경과가 핵심임을 감안하면 본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선 정보 수집”과 “정탐 활동”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운요호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이 평화적이고 국제법에 준거한 정당한 활동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 측량활동의 불법성 인식과 그 영향

일본 국기의 게양 여부에 따라 운요호에 대한 조선의 발포 사건의 국제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일본 국기의 게양 여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조선의 연안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타국의 영해를 측량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토론자의 무지일 수 있으나) 잘 지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은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전에 타국의 연안측량이 불법임을 인지했으며 이를 합법적으로 획득해 안정적인 해양진출을 위해 ‘해안 측량권’을 조선에 강요하였다. 이는 조약 체결 직후 곧바로 군함을 조선에 파견해 해안측량을 본격화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운요호의 함장과 승조원은 이미 조선 파견을 불법적 혹은 침략적 성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인식했을 조선인이 발표자의 서술대로 부정적이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 조선인식의 주제.

본 발표문에서 제시한 ‘인식’의 주제는 얼핏 제목으로만 봤을 때 ‘일본’으로 이해되고 그 대상은 ‘조선’ 혹은 ‘조선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요호가 파견되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주로 활약한 인물들은 ‘함장’과 ‘승조원’일 것이다. 이들이 접한 조선에 대한 비접촉적 외적 정보는 ‘일본’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윤요호 함대 구성원이 경험한 ‘조선’이 곧 일반적인 ‘일본’의 조선인식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에 대한 일반적인 비접촉적 외적 정보는 윤요호사건 전에도 왜관·청국·선교사 등에 의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승조원’의 조선 인식은 즉자적 형태의 것으로 체계화한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 연구방법론.

발표자는 윤요호 사건의 조선 도항 와중에 있었던 동해안 정탐과 3일간의 교전에 대해 기존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교차분석하면서 본 발표문을 작성하였다. 발표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윤요호의 활동을 기존 자료 및 연구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면서 비교·수정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이 발표문을 읽어내려가는 데에 흥미를 유발했음은 독자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서술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논문의 의의가 무엇인지는 쉽게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윤요호사건의 진상과 전개 및 보고서 날조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제시되었고 고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차분석으로 활용한 자료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기존 연구를 재해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랜만에 흥미진진한 발표문을 먼저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영숙 소장님과 연구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글을 써주신 박한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인의 조선안내서 간행과 실태

최혜주(한양대)

- I. 머리말
- II. 조선 안내서의 간행실태
 - 1. 1870년대의 간행물
 - 2. 1880년대의 간행물
 - 3. 1890년대의 간행물
 - 4. 1900년대의 간행물
- III. 조선 안내서의 간행목적
- IV. 조선 안내서에 나타난 조선인식
 - 1. 사대적·야만적인 조선(인)론
 - 2. 러시아 경계와 조선보호론
 - 3. 조선 이주론
 - 4. 일본세력 확장과 조선경영론
- V. 맺음말

I. 머리말

근대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신정부의 외교 방침에 따라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준비했다.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여 메이지정부 안에 정한론이 비등할 때는 군인을 보내 조선관련 정보를 정탐했다. 아울러 외교관을 통해 불평등조약으로 개항을 유도한 후 士族, 기자, 실업가, 학자 등 다양한 인물과 단체¹⁾를 통해 시기별로 조사와 간행이 이루어졌다.²⁾ 청일전쟁 이전 안내서를 간행한 방법은 네 가지가 있었다. ① 직접 조선에

1) 예를 들면 東京地學協會(1879), 東邦協會(1891), 植民協會(1893), 東亞同文會(1898), 東洋協會(臺灣協會, 1898) 등이다.

최혜주,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2005: 동, 「일본 동양협회의 식민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2007: 동, 「일본 동경지학협회의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1, 2010: 동, 「일본 동방협회의 조선사정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2012: 동, 「일본 식민협회의 식민활동과 해외이주론」, 『송실사학』 30, 2013.

2) 鶴園裕, 「調査の時代-明治期日本人における朝鮮研究の一點描」, 『千葉史學』 7, 1985: 남영우,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한 병요조선지지 및 한국근대지도의 작성과정」, 『문화역사지리』 4, 1992: 木村健二, 「메이지 시대 일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선 인식」,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1』,

가서 사정을 조사하고 견문한 것을 귀국 후에 보고서로 작성, ② 중국책이나 프랑스책을 입수하여 한문(『朝鮮國志』, 『鷄林地誌』)이나 일본어(『朝鮮事情』, 『朝鮮八域誌』)로 번역, ③ 일본신문에 게재된 조선통신을 발췌하여 간행(『通俗新編 朝鮮事情』) ④ 조선의 고문헌을 이용한 것은 사족 출신(近藤保祿, 坂根達郎, 根村熊五郎, 清水橘郎)이나 역사학자 足立栗園 등이다. 대부분이 ①의 방법으로 직접 견문한 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대외팽창 분위기가 고조되어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안내서가 간행되었다.(<표1>참조)

이러한 조사와 함께 개항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내한하기 시작하면서 1881년에는 3,417명이 거주했다. 1885년에는 4,521명, 1890년에는 7,245명이 거주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일본인 고문들이 들어와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청일전쟁 후에는 12,303명이 거주하고 러일전쟁이 개시된 1904년에는 31,093명으로 증가했으며, 다음해에는 42,460명이 활동하게 되었다. 1910년 당시에는 이미 17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조선에 건너왔다.³⁾

이 발표는 일본인들에게 조선 이미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개항 이전부터 병합시기까지 간행한 안내서의 실태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내서들은 일본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조선을 조사했는지 시기별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또한 일본인들에게 유통되어 조선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 자료들은 방대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⁴⁾

먼저 1870년대 이후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나누어 안내서의 간행실태를 정리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안내서를 간행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안내서에 나타난 조선인식을 정리한다. 이 안내서들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조선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각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밖에도 정치, 경제, 언어, 문학, 회화 관련 서적이나 단순한 시찰이나 관광을 위해 간행한 여행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당시의 신문 잡지에 게재된 조선사정 관련 정보나 자료 등도 일본인의 조선인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별도로 분석해보려고 한다.

II. 조선 안내서의 간행실태

1. 1870년대의 간행물

일본정부는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천황정부가 탄생하자 서계문제로 조선과의 교섭을 시작했다. 1870년 외무성관리 사다(佐田白茅) 등을 처음 조선에 파견하여 서계수리를 독촉했다. 조선 측은 서계에 종래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와 외교격식에 어긋나는 일을 들어 접수를 거부했다. 이때 일본정부 내에서는 무력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구미를 견문하고 돌아온 사절단의 오쿠보(大久保利通) 등은 내치우선의 입장에서

아연출판부, 2002: 박양신, 「19세기말 일본인의 조선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 『역사학보』 177, 2003: 함동주, 「1900년대 초 일본의 조선관련 서적 출판과 '식민지 조선상」, 『근현대 일본의 한국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

3) 권숙인, 「도환의 권유:1900년대 초두 한국이민론 속의 한국과 일본」, 『사회와 역사』 69, 2006, 188쪽;이규수, 「재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형태-수량적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25, 2013.

4) 각 시기별로 간행된 안내서의 기본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최혜주,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사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2012: 동, 「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2013: 동,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사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2014.

정한론을 강하게 반대하여 정한은 취소되었다. 사다는 무력을 동반한 皇使 파견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한 후『朝鮮聞見錄』(1875)을 간행하였다. 이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을 공식 방문한 외교관의 기록이며, 현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간행된 최초의 저술로 평가할 수 있다.⁵⁾

이밖에도 도조(東條保), 에노모토(榎本武揚), 후소(總生寬)의 저술이 주목된다. 도조(東條保, 유학자)는『朝鮮誌略』(1875)에서 삼국의 역사를 일본에 대한 조공의 역사로 기록하여 식민사학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에노모토(榎本武揚)는 달래의『조선교회사』서론을 번역하여『朝鮮事情』(1876)을 간행했다. 정한문제가 일본정계의 중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조선사정에 대한 지식이 급무였을 때 나왔다. 후소(總生寬, 작가)는 정한문제가 중요 이슈로 등장할 때『朝鮮新論』(1876)에서 그 찬반론을 소개했다. 당시의 정한 논의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와 운양호사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이 운양함을 향해 戰端을 일으킨 것이 “도요토미(豊臣秀吉) 때의 원망을 보복하려는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기 안내서에는 조선 사회 전반의 구조 및 제도, 세시, 풍속, 병제, 호적, 형벌제도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실었다. 그리고 정한론이 등장하면서 조선은 일본과 ‘支那’의 속국으로 상고시대부터 조공을 바쳐 독립한 적이 드문 나라이고, 진구(神功)황후의 정벌 이래 일본에 복속한 나라가 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의 노골적인 ‘정한’ 의도를 소개하며 일본도 조선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안내서를 간행했다.

2. 1880년대의 간행물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수신사 파견과 함께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通俗新編 朝鮮事情』(1880),『朝鮮國京城奇談』(1885) 등이 간행되었다. 또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두 사건과 관련한 책이 많이 간행되었다.⁶⁾ 곤도(近藤真鋤, 부산영사)는 조선 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라도와 충청도를 조사하고『택리지』를 번역한『朝鮮八域誌』(1881)를 간행했다.『택리지』의 내용에 자신이 직접 조사한 원산, 부산, 진강, 아산, 인천, 교동, 한성 지역의 정보를 증보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고 상권을 침탈하기 위한 정탐과 안내서를 준비한 것이다. 네무라(根村熊五郎)가『朝鮮近情』(1882)을 저술했는데⁷⁾ 일본 내에는 이처럼 당시 임오군란이 일어난 조선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함을 경계하고 조선사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스즈키(鈴木信仁)는 “구미열강이 조선을 약탈하려는 것을 걱정하고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朝鮮紀聞』(1885)을 저술했다고 주장하였다. 고마쓰(小松運)는 군의관으로 원산의 생생의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朝鮮八道誌』(1887)를 저술했다. 조선인들의 질병상태를 조사하여 기후, 가옥구조, 관습, 싸움, 온돌, 풍토 질환을 분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각도의 지세, 기후, 산세 등을 정리하며 특히 요해지가 어느 곳인지 수비 문제나 험준한 곳 등 항구에는 정박이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전국의 물산 시장 등을 다양하게 조사했다.

『朝鮮地誌略』(1888)은 육군참모본부의 첩보활동 결과 작성된 지리서다. 육군대위 오하라(大原里賢) 과장을 중심으로 총 20명이 동원되었다. 조선에 파견된 첩보원들의 교정 작업을 마치고서 간행되었다.⁸⁾ 군사적 목적을 위해 편찬된 책인 만큼 연안조사와 해안측량의 결과 거리,

5) 佐田白茅, 『朝鮮聞見錄』 卷之下, 1875, 2-6쪽.

6) 櫻井義之, 「明治時代の對韓意識について」, 『明治と朝鮮』, 1964, 259-260쪽.

7) 根村熊五郎, 『朝鮮近情』, 朝鮮近情引, 1882.

8) 남영우,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한 병요조선지 지 및 한국근대지도의 작성과정」 『문화역사지리』4, 1992, 86쪽.

고저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 시기에는 강화조약 체결 이후 수신사 파견과 함께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안내서가 간행되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조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난 시기로 두 사건과 관련한 책이 많이 간행되었다.

3. 1890년대의 간행물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은 제국주의 세력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며 많은 안내서가 간행되었다. 먼저『朝鮮』(1890)은 오타기리(小田切萬壽之助, 외교관)가 현지 정탐과 조사를 통해 대조선 외교정책의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오타기리는 조선의 ‘死命’을 제압하는 것은 러시아라고 지적한다.⁹⁾『北征錄』(1893)은 스에히로(末廣重恭, 중의원의원)가 러시아가 절영도를 주목하여 조선정부와 담판을 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세계 武備의 요새 및 군항이 될 것임을 주목했다.¹⁰⁾

청일전쟁 전에 조선을 정탐한 종군기자 사쿠라이(柵瀨軍之佐)의『見聞隨記 朝鮮時事』(1894)와 혼마(本間久介)의『朝鮮雜記』(1894)가 있다. 사쿠라이는 열강의 각축가운데 조선 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¹¹⁾. 혼마는 조선의 풍습과 일반생활, 청국의 야심과 일본의 열세 등을 다루면서 ‘문명국’ 일본에서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을 생생하게 담았다. 이 책은 청일전쟁 발발과 함께 간행되어 일본인의 조선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¹²⁾

『朝鮮從軍渡航案内』(1894)는 난바(難波正一)가 지은 도항 인부를 위한 안내서다. 청일전쟁시 군대를 도울 인부를 모집하기 위해서다.¹³⁾ 신체 건강한 자는 인부가 되고, 재화가 있는 자는 군자금을 헌납하는 것이 국민 전체가 해야 할 일임을 촉구했다. 아다치(足立栗園, 역사학자)는『朝鮮志』(1894) 제1편에서 조선의 지리를 아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말한다. 청국과의 문제가 급박한 때 이 지역은 중요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제2편 역사에서는 조선이 태고부터 다른 나라의 속국, 부용국이었음을 강조한다.¹⁴⁾『朝鮮內地調査報告』(1895)는 구마모토 상공회의소 초대회두 오카자키(岡崎唯雄)의 저술이다. 1895년 4월 14일부터 4개월 간 전국의 상업상황을 조사한 기록이다. 일본에서 조선의 내지 사정을 아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경성이나 개항장의 상황을 조사하면서 일본 상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는 갑신정변 이후 일본의 지사들이 대륙경영에 뜻을 품고 조선에 건너오는 자가 많아졌다. 그들은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움직임에 주시하면서 상인이나 신문기자, 통신원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면서 견문하고 정탐했다. 이때 조사한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여 일본의 대조선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4. 1900년대의 간행물

러일전쟁 직후 일본정부는 조선경영의 방침으로 군사, 외교, 재정, 교통, 통신, 척식 등 6항목에 걸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였고, 조선을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 주목하여 일본의 과잉

9) 小田切萬壽之助, 『朝鮮』, 제5 朝鮮半島ノ未來, 朝鮮政略, 1890, 156쪽.

10) 末廣重恭, 『北征錄』, 港内の模様, 1893, 33쪽.

11) 柵瀨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 1894, 54쪽.

12) 최혜주 옮김(本間久介 지음), 『朝鮮雜記-일본인의 조선정탐록』, 2008, 278-285쪽, 김영사.

13) 難波正一, 『朝鮮從軍渡航案内』, 1894, 10쪽.

14) 최혜주, 「메이지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일선동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2003, 174-185쪽.

인구를 배출할 이주식민정책을 추진했다. 1908년 9월의 각의에서 ‘대외정책방침 결정의 건’으로 만한이민집중론을 받아들이는 방침을 결정했다.¹⁵⁾ 이러한 식민정책이 성립된 배경에는 이주 안내서가 간행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간행된 안내서는 크게 도항 안내, 조선사정 안내, 조선식민 경영, 역사 지리연구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첫째, 도항 안내서들은 여행안내를 겸한 것도 있지만 일본의 과잉 인구의 출구로서 조선에 이주식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도항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간행물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朝鮮渡航案内』(1904), 『渡韓のすすめ』(1909), 『渡韓成功法』(1910) 등이 도항을 장려했다. 둘째, 조선사정에 관한 안내서로 『最新韓國事情』(1903), 『最新の韓半島』(1906), 『韓國之實情』(1906), 『最近朝鮮事情』(1906) 등이 있다. 또한 우스다(薄田斬雲)의 『暗黒なる朝鮮』과 『コボ記』(1908), 『朝鮮漫畫』(1909)는 조선의 야만성을 부각시켜 차별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셋째, 조선 식민경영 안내서는 러일전쟁 이후 ‘조선은 문명으로 이끌고 부원을 개척’한다는 명목하에 조선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다. 『韓國成業策』(1904), 『韓國及九州談』(1905)은 러일전쟁 승리 후 조선을 통치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일본인 이주총락 건설을 장려하고, 또한 조선의 쌀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본의 식량공급상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韓國殖民管見』(1907), 『韓國殖民策』(1908)은 이주식민을 장려했다. 넷째, 역사 지리연구 안내서로 야즈(矢津昌永)의 『韓國地理』(1904), 다부치(田淵友彦)의 『韓國新地理』(1905)가 있다. 일본인들의 인문지리서들은 러일전쟁 전후 다량으로 간행되기 시작했다. 1910년에는 병합을 기념하여 한반도의 지리를 조사하고 이전의 역사와 병합된 이유를 밝히는 『朝鮮新地誌』, 『朝鮮新地理』, 『朝鮮年代記』가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도항안내서, 조선사정 안내서, 조선식민 경영안내서, 역사지리서가 간행되었다. 도항안내서는 ‘무한한 寶庫’인 조선에의 도항을 권유하는 것으로 소자본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를 수록했다. 이주에 대한 관심은 인구증가 문제의 절박함에서였다. 조선사정 안내서는 조선인의 미개성을 타자의 시선으로 묘사하여 조선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생산했다. 조선식민 경영안내서는 중소농민 이주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선식민의 중요성을 호소한 것이다. 역사지리서는 병합의 유래를 밝히고 식민통치를 위한 준비에서였다.

III. 조선 안내서의 간행목적

조선 안내서는 일본인들이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도항을 권유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러일전쟁 이후에는 도항자 수가 급증하게 된다.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사정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로 안내서를 간행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 파악과 군사 정탐을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에서 건너와 조선사정을 조사한 하다노(波多野承五郎)는 후쿠자와(福澤諭吉)의 제자로 『時事新報』 기자, 천진 영사, 『朝野新聞』 주필 등을 역임했다. 그는 조선이 ‘동양의 발칸반도’와 같다고 생각했다. 발칸반도는 정치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으로 끊임없이 외부세력의 지배를 받았다. 근대에 들어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 여러 세력의 영향을 받고 열강의 간섭이 격화되어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다. 조선이 발칸반도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만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참고서적도 부족하여 안내서를 간행한다는 것이다.¹⁶⁾ 야즈(矢津昌永)도 지정학적인

15) 이규수, 「20세기 초 일본인 농업이민의 한국이주」, 『대동문화연구』 43, 2003, 31~33쪽; 정연태, 「대한제국 후기 일제의 농업식민론과 이주식민정책」, 『한국문화』 14, 1993.

16) 波多野承五郎·杉山虎雄, 『北支那朝鮮探險案内』, 부록, 『朝鮮問題の由來』, 1894, 139-140쪽; 小松

관점에서 세계의 최강국 러시아와 ‘빈약국’ 조선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기이한 현상’에 관심을 가졌다.¹⁷⁾ 일본의 위협이 되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를 사이에 놓고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은 이미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안내서를 간행했다.¹⁸⁾ 마쓰모토(松本謙堂)는 일본의 사명은 조선의 정세를 살펴서 동방의 백년대계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하여 조선의 지리를 조사한 안내서를 간행했다.¹⁹⁾ 이 안내서는 현재 『大韓地誌』(1899)를 편찬할 때 고마쓰(小松運)의 『朝鮮八道誌』(1887)와 함께 참고한 책이다.²⁰⁾ 청일전쟁의 전운이 급박해질 때 아다치(足立栗園)는 조선반도의 지세, 역사를 알고 이해득실을 강구하기 위해 지리서와 역사서를 간행했다.²¹⁾ 이처럼 군사적 정탐을 위해 조선의 육해군 수, 총포 구입 현황, 군함 규모 등의 국방력²²⁾이나 각도의 지세와 산세, 요해지, 수비가 험준한 곳, 남해 제일의 요지 등을 다루거나²³⁾, 군사적 요충지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되었다.²⁴⁾

둘째,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의 경제적 이권을 침탈하고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스에히로(末廣重恭)는 朝野新聞 편집장, 大同新聞 기자 등을 지내며 1890년 중의원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었다. 이후 1892년 블라디보스토크, 芝罘, 천진, 원산, 인천, 부산, 경성 등을 시찰하고 나서 일본의 대한정략의 중점은 조선의 무역을 확장하는 방략으로 정했다.²⁵⁾ 중국, 러시아, 조선의 개항장에 대한 정탐을 통해 많은 일본인 투자자를 물색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다노(波多野承五郎)도 조선의 상권과 거류지 개항장의 무역상황을 주목했다. 부산항의 상권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지만 경성은 중국인이 장악하여 중국인의 자본규모가 방대함에 자극받고 장래의 개항장으로 평양을 주목하고 있다.²⁶⁾

중국 상권의 확장과 중국인의 상술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즉 『見聞隨記 朝鮮時事』를 쓴 사쿠라이(柵瀬軍之佐)는 山梨日日新聞 주필과 東京毎日新聞 편집장을 지낸 뒤 사쿠라이상회를 설립했다. 그는 일본인이 일한무역에 독점하고 있지만 금후 가장 주의할 것은 중국인이라고 보았다. 조선의 개항장을 견문한 뒤 수산업이 유망함을 강조했다.²⁷⁾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상권장악을 위한 개항장 및 전국 시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예를 오카자키(岡崎唯雄)의 경기, 황해, 평안, 충청, 전라, 경상도 조사에서 알 수 있다.²⁸⁾ 그는 상권 확장을 위한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식산흥업의 방편을 알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중심으로 안내서를 간행한 것이다.

셋째,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의 富源을 개척경영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인들은 러일전쟁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조선에 이주할 것을 주장하는 안내서를 간행했다. 이는 조선의 자원을

運, 『朝鮮八道誌』, 自序, 1887: 小田切萬壽之助, 『朝鮮』, 序(柴山常則), 1890.
 17) 矢津昌永, 『朝鮮西伯利紀行』, 露韓國際間の現象, 1894, 1쪽.
 18) 清水橘郎, 『朝鮮事情鶏の腸』, 緒言, 1894.
 19) 松本謙堂, 『朝鮮地誌要略』, 序言, 1894.
 20) 강철성, 「현재의 대한지지 내용 분석-자연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2), 2006, 118쪽.
 21) 足立栗園, 『朝鮮志』 제1편 地理, 概論, 1894, 1-2쪽.
 22) 秋野要一郎, 『通俗新編 朝鮮事情』, 제3 陸海軍の事, 1880.
 23) 小松運, 『朝鮮八道誌』, 1887, 18-106쪽.
 24) 柵瀬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 京城の雜見, 1894, 36쪽.
 25) 末廣重恭, 『北征錄』, 懇親會, 1893, 130쪽.
 26) 波多野承五郎-杉山虎雄, 『北支那朝鮮探險案内』, 釜山及其近傍, 1894, 116-117쪽.
 27) 柵瀬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 釜山港の商況, 1894, 131쪽: 全慶兩道岸の漁業, 132쪽.
 28) 岡崎唯雄, 『朝鮮内地調査報告』, 내지행상, 1895, 9-15쪽.

개척하여 약탈하기 위함이었다. 러일전쟁 전후 전쟁범죄 고조되면서 도항자가 급증하고 무역 상업 등을 고찰하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선사정에 대한 안내서가 필요했다. 사토(佐藤政治郎), 이토(伊藤長次郎), 가토(加藤政之助)는 일본의 대륙발전 근거지는 한반도에서 시작해야 하고 열강의 간섭으로부터 조선경영을 선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²⁹⁾ 이토(伊藤清藏)는 식민의 목적과 추세, 중소농민 이주책을 중심으로 학교와 일반사회에 식민의 중요성을 호소했다.³⁰⁾ 아오야기(靑柳綱太郎)는 식민을 논하는 자들의 담론이 공허함을 비판하면서 이주식민을 장려했다.³¹⁾ 사쿠라이(櫻井市作, 新潟 시장)는 식민지 개척을 위해 도항자들에 조선 이주가 북미 이주와 비교하여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를 강조했다.³²⁾

넷째, 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파하여 독립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보호국이 된 조선을 '지도'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에 와서 조선사정을 조사하던 일본인들은 조선이 '문명'국 일본에 비해 야만성을 지적했다.³³⁾ 시오자키(塩崎誓月)는 조선인을 어느 정도로 대우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조지(圓城寺清)는 조선사정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그렸다. 우스다(薄田斬雲)는 조선 풍습의 미개성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조선 가옥의 불결과 뇌물의 유행을 가지고 후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³⁴⁾ 조선인이 가난한 것은 민족성자체가 게으르고 식산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³⁵⁾ 나아가 조선은 태고부터 독립국이 아니고 항상 半屬國, 附庸國이었다고 그 역사적 근거를 왜곡했다.³⁶⁾

이와 같이 고마쓰(小松悅二, 讀賣新聞 기자)의 지적처럼³⁷⁾ 일본은 열강의 침탈로부터 조선을 先占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조사했다. 안내서를 간행한 목적은 ①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 파악과 군사 정탐, ② 청일전쟁을 전후한 조선의 경제적 이권침탈과 상권장악, ③ 러일전쟁을 전후한 조선의 부원 개척과 경영, ④ 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전파와 독립 불능을 강조하고 보호국이 된 조선을 '지도'하기 위해서였다.

IV. 조선 안내서에 나타난 조선인식

1. 사대적·야만적인 조선(인)론

1) 사대적인 조선론

청일전쟁 이후 도항하는 일본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조선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조선을 안내하기 위해 안내서가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여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조선인은 어떠한 성질을 가졌는가, 어떤 민족인가 하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시노부(信夫淳平)는 조선인의 성품은 게으르다고 말한다. 조선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그것이 원인이라고 낙후성을 지적했다. 역사적으로도 자국의 역사를 버리고 중화의

29) 佐藤政治郎, 伊藤長次郎, 加藤政之助

30) 伊藤清藏, 『韓國殖民管見』, 1907.

31) 靑柳綱太郎, 『韓國植民策』, 1908, 自序, 1-4쪽.

32) 櫻井市作, 『僅日錄』, 序, 1909, 1쪽.

33) 小松運, 『朝鮮八道誌』, 總論, 醫事, 1887, 14-17쪽.

34) 末廣重恭, 『北征錄』, 家屋の構造, 1893, 19-20쪽 ; 柵瀨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 釜山港の上陸, 1894, 11-12쪽.

35) 堀内松治郎, 『鷄林紀遊』, 1894, 17쪽.

36) 足立栗園, 『朝鮮志』, 제2편 歷史, 概論, 1894, 8쪽.

37) 小松悅二, 『新撰韓國事情』, 自序, 1909, 1-4쪽.

사적만을 받아들여 국민 스스로 자기를 선천적 열등인종으로 여기는 비굴한 생각을 양성해 왔다고 폄하했다.³⁸⁾ 또한 일본과의 관계는 임나일본부 설치 이후 긴밀해졌으며 진구황후가 征韓한 뒤에 삼국은 복종하여 조공을 끊이지 않았으며 조선전체가 일본에게 附庸했다고 종속성을 주장했다.³⁹⁾

이처럼 조선인의 근본적 자질이 “선천적으로 애국관념 혹은 국가정신이 부족하다”⁴⁰⁾는 지적이나, 조선의 지리적 관계가 항상 강국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인식도 보인다. 마쓰미야 (松宮春一郎, 電報新聞 기자)는 주변국의 강한 압박에 피로를 느끼는 “불쌍한 조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⁴¹⁾ 언론인 우에무라(上村賣劍)는 1903년 北淸과 조선을 여행하며 조선이 지리적 형세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서 강한 나라를 섬기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여 그 종속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조선의 사대주의는 일본에게는 便宜한 것이라고 본다. 조선은 支那와 일본에게 조공하는 것이 2천 년의 습관이기 때문에 조선의 군신이 반드시 일본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웃 강국인 러시아를 견제하지 않으면 조선은 러시아에게 사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본이 막아야 한다는 보호 논리를 펼치고 있다.⁴²⁾

혼마(本間久介)는 조선이 “오늘은 청에 의지하고 내일은 러시아에 의지”하기 때문에 청과 일본의 각축장이 될 뿐 아니라 서구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위급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의 사대주의 근성을 비판하며 일본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이미 동양의 맹주로서의 위신을 잃었음에도 조선은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청을 숭배하는 사대주의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 중심의 중화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준비하고 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2) 야만적인 조선인론

조선을 식민지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사정을 알고 조선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대체로 조선인의 낙후성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서술이 등장한다. 먼저 혼마는 조선인은 나태하고 무사태평하고, 비가 오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아 반나절 걸릴 일을 3-4일이나 걸려서 한다고 후진성을 지적했다. 관리는 모두 도적이며 조선인은 참담한 지옥에 살아도 개의치 않는 것은 유전성에 의한 것이고 조선인은 단순하고 불결하다고 폄하했다.⁴³⁾ 다음 야즈는 부산과 원산항 등을 시찰하면서 조선인 가옥의 누추함과 음식점의 불결한 모습을 지적한다. 거류지 주변의 모습을 보고 마치 ‘중앙아프리카’라는 생각이 든다고 묘사하여 일본의 문화적 민족적 우월성을 드러낸다.⁴⁴⁾ 軍醫 고마쓰(小松運)도 조선인의 위생적 불결과 질병의 만연, 이에 대한 방임 상태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⁴⁵⁾ 스에히로(末廣重恭)가 1892년 8월 23일 부산주변의 가옥을 본 인상을 “人家라기 보다는 돼지우리와 같다. 공정하게 평한다면 우리나라 변두리에 있는 에다촌(穢多村, 천민거주 지역)에 방불하다”고 언급했다.⁴⁶⁾ 또한 경성지역을 돌아보고 “그 모습은 헤이안조(平安朝)의 말로와 동일하다.”⁴⁷⁾ 즉 조선의 상태

38) 信夫淳平, 『韓半島』 제2장 경성, 1901, 120-124쪽.

39) 상동, 제9장 국제관계의 사력, 제1절 일본, 1901, 386쪽.

40) 矢津昌永, 『韓國地理』, 「조선의 식민적 자격」, 1904, 190쪽.

41) 松宮春一郎, 『最近の韓國』, 제31장 한국의 지위, 1905, 319쪽.

42) 上村賣劍, 『淸韓遊踪』, 「한국의 형세」, 1906, 1-3쪽.

43) 최혜주 옮김(本間久介 지음), 『朝鮮雜記-일본인의 조선정탐록』, 시가의 불결, 2008, 238-239쪽.

44) 矢津昌永, 『朝鮮西伯利紀行』, 朝鮮固有の臭氣始めて鼻を搏つ, 1894, 16쪽.

45) 小松運, 『朝鮮八道誌』, 總論, 醫事, 1887, 14쪽.

46) 末廣重恭, 『北征錄』, 1893, 19-20쪽.

를 일본의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년경)에 해당되듯이 일본보다 1천년은 뒤진 것으로 폄하했다.

사쿠라이(柵瀨軍之佐)는 조선 문화를 천시하면서 조선의 전통문화·풍습·생활모습 등을 악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모습으로 강조한다.⁴⁸⁾ 또한 지배자들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뇌물과 청탁에 길들여진 부패하고 무능한 이들로 묘사했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우월감과 멸시감을 심어줌으로써 일본이야말로 미개한 조선을 문명화시키기 위해 결국 조선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⁴⁹⁾ 또한 우에무라(上村賣劍)는 부산포에 도착한 소감에서 “토지가 불결하여 악취가 나고 모든 자녀가 놀고먹는 무리다. 흰옷을 입고 긴 옷자락을 끌고 2척 길이의 담뱃대를 입에 물고 유유히 왕래하여 세상에서 바쁜 일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참으로 망국의 백성”이라고 언급했다.⁵⁰⁾

이러한 미개한 조선이 장래 일본의 부용의 위치에 설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업가들은 농업과 상업, 어업에서 일본의 국력을 부식할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토(伊藤長次郎, 농정가)는 한 달간 규슈와 조선을 시찰하면서 조선이 미개한 원인은 흡연, 사례비, 게으름, 불결, 온돌, 조흔, 가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⁵¹⁾ 시오자키(塩崎誓月, 朝鮮新報기자)는 조선인을 돼지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고 양반도 ‘구제할 수 없는 무리뿐’이라는 멸시관을 갖고 있다.⁵²⁾ 이런 야만적이고 무능한 조선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조선통치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오키다(沖田錦城, 신문기자)는『裏面の韓國』에서 “야마토 민족이 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생각하고, 식민 사업을 수행하기에 유망한 곳이라고 진단했다. 우스다(薄田斬雲, 경성일보기자)도 경성체재 중 경험한 조선사정을『暗黒なる朝鮮』, 『ヨボ記』에서⁵³⁾ 조선의 어두운 면을 중심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처럼 당시 재조언론인들은 신문이나 잡지매체를 통해 본국에 조선사정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조선 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조선인의 야만성과 미개성을 문명국 일본인의 시각에서 타자화하여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재생산했다.

2. 러시아 경계와 조선보호론

1) 조선점령을 위한 러시아 경계론

일본정부는 외무성의 세와키(瀬脇壽人, 7등출사)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교섭을 벌였다.⁵⁴⁾ 그는 외교관이었지만 정담이 주된 임무였다. 당시 니콜리스크에 머물던 중 金麟昇을 만나 조선사정을 듣고 하야시(林深造)와 함께『鷄林事略』(1876)을 간행했다. 러시아의 남진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사정 안내서였다. 이처럼 일본은 러시아를 주목하여 양측의 사정을 정탐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다. 또한『朝鮮紀聞』의 서문을 쓴 구스모토(楠本正隆, 중의원의장)가 이 책의 간행의의를 “요충지인 조선에 주목하는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는데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알 수 있다.⁵⁵⁾

47) 末廣重恭, 『北征錄』, 1893, 111쪽.

48) 柵瀨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 京城の雜見, 1894, 45~46쪽.

49) 柵瀨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 政治機關の組織, 1894, 48~50쪽.

50) 上村賣劍, 『清韓遊踪』, 「부산포에 도착하다」, 1906, 25쪽.

51) 伊藤長次郎, 『韓國及九州談』, 「풍속소감」, 1905, 75쪽.

52) 塩崎誓月, 『最新の韓半島』, 33. 한인의 대우에 대하여, 1906, 189-191쪽.

53) 薄田斬雲, 『ヨボ記』, 「老老國」, 1908, 33-34쪽.

54) 구양근, 「일본외무성 7등출사 瀬脇壽人과 외국인 고문 金麟昇」, 『한일관계사연구』 7, 1997.

55) 鈴木信仁, 『朝鮮紀聞』, 序文, 1885.

오타기리(小田切萬壽之助)는 상업과 병략에서 조선을 위태롭게 할 나라는 열강 중에 러시아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장래 태평양을 건너와서 반도를 합중국적 한 주로 만들 일은 없을 것이고, 청국은 안남사건이래 조선을 판도에 넣는 것은 外憂를 증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조선을 점령할 형편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식민정략의 의향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방략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것인데, 실패한다면 쓰시마 해협은 물론 오키(隱岐)의 사이고항(西郷港)도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⁵⁶⁾ 즉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하기 전에 일본이 선점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조선점령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스에히로(末廣重恭)다. 그는 러시아의 철영도 租借는 “일본에게 중요한 사건이며 결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⁵⁷⁾ 경고한다. 러시아가 남하할 때 원산항에 깃발을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항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1892년 조선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찰한 뒤 러시아가 시베리아철도 건설에 착수하여 매해 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구 내외에 포대를 건축하여 규모가 광대한 것이 놀랄만하다고 주시했다.

사쿠라이(柵瀬軍之佐)는 러시아와 조선을 시찰하던 중 조선에 주재하던 원세개를 방문했다. 이때 원세개는 시베리아철도의 준공 기일을 물어 준공 후의 문제를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 결과 사쿠라이는 일본의 경계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⁵⁸⁾ 시베리아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스기야마(杉山虎雄, 時事新報기자)의 언급에도 보인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동양의 ‘燒點’이 된 조선 문제는 시베리아철도 낙성 이후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철도의 효용이 군사상, 商略上, 殖産上 어디에 있는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⁵⁹⁾ 이 군사철도가 완성된 뒤에는 러시아의 병세가 크게 증가하여 태평양연안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울러 러시아 정략의 요점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유지하여 러시아의 ‘鎖鑰(동력 전달 바퀴)’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만일 타국이 조선의 독립을 위협하게 한다면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이 철도가 준공되면 청, 영, 일은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조선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일본은 이에 대처할 방법으로 러시아를 경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2) 조선 보호와 일본 책임론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는 문명국의 입장에서 야만국 조선을 지도하고 보호할 사명을 가진 야마토 민족임을 주장하는 담론이 무르익게 된다. 러일전쟁 승리는 러시아를 제패한 일본이 열강을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일본이 이익선 확장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조선에 대한 보호국 만들기였다. 시노부(信夫淳平)는 1897년에 인천이사관이 되어 조선에서 활동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에 이익선을 확장하는 이유를 양국이 “지리상, 역사상 특수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이며 책무”라고 주장했다.⁶⁰⁾ 오사다(長田信藏)는 개성부 거류민총대로 활동한 인물인데 이익선의 선봉에 가세하여 야마토 민족의 팽창을 바라는 자는 모두 조선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韓國成業手引』의 결론에서 제국의 이익선 확장은 농부, 노무자, 상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교육이라고

56) 小田切萬壽之助, 『朝鮮』, 제5 朝鮮半島ノ未來, 朝鮮政略, 1890, 149-156쪽.

57) 末廣重恭, 『北征錄』, 1893, 17-18쪽.

58) 柵瀬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 袁世凱を訪ふ, 1894, 65쪽.

59) 波多野承五郎, 『北支那朝鮮探險案内』, 「朝鮮問題の由來」(杉山虎雄), 1894, 157-161쪽.

60) 信夫淳平, 『韓半島』, 제10장 각국의 이익선, 1901, 621-622쪽.

말한다. 조선에 학교를 세워 일본어를 보급시키는 것이 조선인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일본의 국풍으로 동화시키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아마노(天野誠齋)는 도한자는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인의 지도자가 되고 조선을 개발하는 책임있는 국민이 될 각오를 지녀야 한다고도 말한다.⁶¹⁾ 조선에 대한 일본 책임론에서 가토(加藤政之助, 중의원의원)는 일본이 조선을 위해 두 차례의 전쟁을 치루면서 수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제국의 보호국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세계열강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선이 직접 열강과 교섭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주장했다.⁶²⁾

이러한 보호국론에 대해 엔조지(圓城寺清, 萬朝報기자)는 일본정부가 조선을 독립국으로 대우하고 있는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러일전쟁 후의 대한처분은 일본의 지휘감독 하에 단호하게 강행해야 하며 황제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보호국은 명목뿐이고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의 주권 일체를 일본에 위임하여 조선 총독을 두고 조선 관리를 감독케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⁶³⁾ 러일전쟁 직후에 이미 조선 총독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음은 주목된다.⁶⁴⁾

시오자키(塩崎誓月, 朝鮮新報기자)는 동아시아의 형세를 한 집안에 비유하여 조선은 ‘방탕한 자식’이므로 아버지는 감시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옛날 진구항후 정벌부터 도요토미의 征韓, 유신 이래 두세 번의 소동을 부린 적이 있으므로 금후 충분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조선에 대한 철저한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⁶⁵⁾ 호리우치(堀内泰吉)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것은 세계열강도 공인한 것이므로 장차 조선을 일본의 내지 연장으로 생각하여 이곳에 식민하고 개척하여 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⁶⁶⁾

이처럼 일본에서는 러일전쟁 이후에 이미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인식은 확산되었다. 조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세계의 보호국이나 식민의 역사를 고찰하여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참고하여 조선의 현재 및 장래의 경영을 연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라는 담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⁶⁷⁾

3. 조선 이주론

1) 조선 속방론

메이지시대 초기에 나온 단행본 가운데는 조선이 상고시대부터 일본에 朝貢을 바쳐왔고 唐 이래 ‘支那’에도 조공을 바친 속국이였으며 독립한 적이 없는 나라였다는 주장이 반복되어 서술되고 있다. 도조(東條保)의『朝鮮誌略』⁶⁸⁾과 다다(多田直繩)의『朝鮮軍記』⁶⁹⁾(1875), 후소(總生寬)의『朝鮮新論』(1876)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은 메이지 신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도 일본의 ‘속방’이었던 것을 잊고 국교재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는 인식

61) 天野誠齋, 『朝鮮渡航案内』, 「도한의 마음가짐」, 1904, 77쪽.

62) 加藤政之助, 『韓國經營』 제16장 결론, 제1 한국에 대한 대방침, 1905, 168-169쪽.

63) 圓城寺清, 『韓國之實情』, 1906, 92-95쪽.

64) 상동, 109-110쪽.

65) 塩崎誓月, 『最新の韓半島』, 1. 일러전쟁에 대하여, 1906, 2-3쪽.

66) 堀内泰吉, 『韓國旅行報告書』 제1편 총론 제1장 한국여행 제2절 여행의 목적, 1906, 1-2쪽.

67) 佐村八郎, 『渡韓のすすめ』, 「일본제국의 책임」, 1909, 23-24쪽.

68) 東條保, 『朝鮮誌略』, 朝鮮總說(平田登圃), 1875, 3쪽.

69) 多田直繩, 『朝鮮軍記』, 1875, 2-3쪽.

도 보인다. 그러면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의 귀화, 백제 초고왕의 조공 약속, 內屯宦家의 설치, 탐라의 조공, 고구려의 조공 등을 기술하여 조선사를 조공의 역사로 만들었다. 즉 조선은 상고 이래 일본왕의 보호와 도움으로 지탱된 역사였다고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朝鮮新論』에서는 도요토미의 조선정벌에 대해서도 합리화시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벌 이유는 고려가 조공을 하던 나라임을 잊고 몽고침략 시에 원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을 노략질했기 때문에 ‘죄를 묻는 군사’였다고 주장한다.⁷⁰⁾ 그러면서 “조선이 속국으로 복종하지 않아서 토벌을 받은 것을 도리어 원망하여 보복하려는 것은 폭동이 아닌가”⁷¹⁾고 말한다. 운양호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속국이었던 조선이 도요토미의 침략을 보복하려고 선제공격을 가한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했다. 운양호사건과 개항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인의 조선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朝鮮紀聞』에는 진구황후의 삼한정벌과 신라왕의 조공약속, 고구려 지역이 일본판도에 속하게 되었다는 조공의 역사가 나열되어 있다.⁷²⁾ 상고시대에 이미 스사노오(素戔鳴尊)가 조선에 왕래한 적이 있다고 서술했다. 조선이 상고시대부터 독립국이 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은『朝鮮志』에도 왜곡된 형태로 드러난다. “이 나라는 小土인데도 불구하고 小邦이 분열하여 항상 서로 공격하고 통일로 돌아간 시대가 없다. 唐의 힘을 빌려 스스로 통합을 도모한 결과는 마침내 支那에게 병합되었다. 그 후 북방에서 일어난 발해, 거란, 여진, 몽고의 난에 의해 항상 견제를 받아왔다. 마침내 元朝의 잠식을 받아 토지가 크게 삭감되었다.”⁷³⁾고 설명한다. 이 책에는 식민사관에서 말하는 일선동조론, 타율성론의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인다. “스사노오가 그의 아들 이다케루를 데리고 내려와 신라국에 이르러 소시모리에 살았다”고 하여 산인도(山陰道)에서 오키도(隱岐道)를 거쳐 일본해를 횡단하여 조선의 동북부에 왕래한 것이라고 한다. “스사노오가 아국에서 저 나라로 건너가 그의 아들 이다케루를 그 땅에 남기고 우리 이즈모(出雲)에 돌아왔다면 이다케루는 마침내 단군이 되어 그 땅에 군림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⁷⁴⁾고 주장한다. 즉 일본신의 남동생인 스사노오의 아들이 조선을 건국한 단군이라는 일선동조론의 원형을 볼 수 있다.

2) 조선 이주와 식민지 적합론

조선사정을 조사한 안내서는 일본인의 이주를 권유하기 위해 간행되기도 했다. 이주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조선이란 신천지가 풍부한 천연보고인지, 어떤 사업을 하면 유망한지,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나은지, 토지, 기후, 인구밀도 등을 소개한 책이 많았다. 조선이 식민지로서 적합한 땅인지, 어떤 방법으로 경영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정리한 것이다. 안내서들은 왜 조선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조선은 일본의 과잉인구 수용이 가능한 곳이다. 야즈(矢津昌永)⁷⁵⁾와 이토(伊藤長次郎, 농정가)는 조선의 면적이 1만 3천 406방리, 인구 1,053만 명이므로, 1방리에 786인이 살 수 있다. 일본과 동일한 인구밀도가 되게 하려면 아직 1,300만 명이 더 이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다.⁷⁶⁾ 야마모토(山本庫太郎)는 매해 늘어나는 일본의 인구를 수용할 만한 가장 적합한 곳

70) 總生寬, 『朝鮮新論』, 1876, 16-17쪽.

71) 總生寬, 『朝鮮新論』, 1876, 22-23쪽.

72) 鈴木信仁, 『朝鮮紀聞』, 4-12쪽: 『日韓交通略史』, 1885, 21-29쪽.

73) 足立栗園, 『朝鮮志』 제2편 歷史 概論, 1894, 8-9쪽.

74) 足立栗園, 『朝鮮志』 제2편 歷史 제1장 建國の起源, 1894, 10-11쪽.

75) 矢津昌永, 『韓國地理』, 「조선의 식민적 자격」, 1904, 190-191쪽.

이 조선이라고 보았다. 조선은 여행허가서를 얻기도 쉽고, 여비는 겨우 15엔이면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조선 내지에서는 쌀 임금으로 조선인을 부릴 수 있는 이점도 거론했다.⁷⁷⁾

둘째,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로 조선에서 러시아세력을 구축했다. 사토(佐藤政治郎, 大阪毎日新聞 기자)는 일본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지만 일본인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권을 열강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⁷⁸⁾ 그러므로 만한경영의 발판을 마련한 뒤 대륙경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조선의 영토보전이 실패로 돌아가면 안전선이 무너져 일본의 규슈나 북해도 지역도 위협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⁷⁹⁾

셋째, 조선은 천연보고로 낙원이다. 아라가와(荒川五郎)는 조선의 농업, 어업, 광업은 일본인이 개척하면 이익이 클 것이라 전망했다.⁸⁰⁾ 아오야기(靑柳綱太郎, 궁내부주사)는 조선은 ‘동양의 보고’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경영하여 이익을 천착하고 조선에게 보호를 약속하는 것이 당연하며, 일본인의 의무라고 말한다. 일본인은 세계의 낙원인 한반도에서 경영의 실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주를 촉구했다.⁸¹⁾ 사무라(佐村八郎)도 조선은 무한한 보고로 일본인의 진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했다.⁸²⁾

넷째, 양국은 同文同種의 관계에 있다.⁸³⁾ 이토(伊藤清藏)는 조선 식민이 다른 외국 식민보다 용이한 것은 인종과 언어, 기후, 성질이 같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전망⁸⁴⁾이라고 여겼다.

다섯째, 조선은 망한 나라가 아니다. 이토는 조선은 망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이 꼭 이주해야만 부패가 극에 달한 조선을 개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일본인이 들어가 식민할 경우 농업식민이 가장 적당하다.⁸⁵⁾ 아울러 중소농민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식민국을 두어야 하고 명칭은 식민계로 해도 좋다고 제안했다.⁸⁶⁾ 이 사업을 완성시키려면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植民地代銀行을 설립할 것도 언급했다.⁸⁷⁾

4. 일본세력 확장과 조선경영론

1) 일본세력 확장과 내지행상론

일본이 조선에서 일본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목한 것은 청국상인의 동태파악과

76) 伊藤長次郎, 『韓國及九州談』, 「결론」, 1905, 119쪽.

77) 山本庫太郎, 『最新朝鮮移住案内』 1. 절호의 발전지, 1904, 8-11쪽.

78) 伊藤政治郎, 『韓國成業策』, 「서」, 1904, 1-4쪽.

79) 상동, 제2장 일러의 개전과 도한, 1904, 7쪽.

80) 荒川五郎, 『最近朝鮮事情』, 「자서」, 1906, 1-2쪽.

81) 靑柳綱太郎, 『韓國植民策』 제10장 오라 일본인이여, 1908, 153쪽.

82) 佐村八郎, 『渡韓のすすめ』, 「빈약국이라고 누가 말하는가」, 1909, 18-19쪽.

83) 이러한 인식은 森潤三郎, 『朝鮮年表』 제2편 제1장 檀君ノ世, 13쪽에도 보인다.

“우리 전설에 神代 素戔鳴尊이 그의 아들 五十猛命과 신라에 건너가서 曾尸茂梨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사가 중에 단군을 五十猛命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한 것처럼 同種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足立栗園은 『朝鮮新地誌』 제10장 인종과 계급에서 “(조선인은)일본 내지인과 다른 용모를 하고 있지만 ...동일 종족이 일본과 조선에 나뉘어 식민했다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朝鮮年代記』 에서도 단군은 五十猛神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84) 伊藤清藏, 『韓國植民管見』, 전편, 한국식민의 목적 제4절 내가 바라는 한국식민의 희망은 합리적인가, 1907, 8-9쪽.

85) 상동, 제5절 조선쪽에서 보더라도 일본인의 한국식민은 행복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9-11쪽. 제6절 무엇으로 우리는 가장 많이 조선에 식민할 수 있는가, 1907, 11-13쪽.

86) 상동, 후편 제1절 식민국 설치가 필요한 이유, 1907, 27-30쪽.

87) 상동, 제3절 식민국의 사업, 31-35쪽. 乙, 식민지대은행, 1907, 37-52쪽.

대응방법 강구였다. 먼저 혼마(本間久介)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을 정탐하면서 일본인의 상권장악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일본세력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⁸⁸⁾ 전국에서 부산만 일본인이 많고 다른 지역은 열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나인들은 무일푼으로 와서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귀국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조선에서 일본의 국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세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 야즈(矢津昌永)는 1893년 7월 24일부터 약 20일간 개항장 부산과 원산,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견문했다. 원산을 방문했을 때 가지야마(梶山新介)와 회담한 내용에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 조선이 얼마나 좋은 시장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⁸⁹⁾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후 청국상인의 상권을 장악하고 식산흥업의 방편에서 개항장을 비롯한 전국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오카자키(岡崎唯雄)를 파견하여 상업조사를 맡겼다. 그는 일본이 청일전쟁 후의 조선에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일이 급선무다.⁹⁰⁾ 일본군대의 수용을 위해 행상하는 자가 많아졌지만 도한자의 대부분이 인천, 경성에 그치고 다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선인의 기호를 먼저 연구하고 중요품목에 대한 요점, 결점 및 장점, 개량점, 장래 수용정도의 가능성 등을 연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⁹¹⁾ 시노부(信夫淳平)는 청상이 우세한 원인으로 “상업자본의 윤택, 신용거래, 저리, 상업도덕의 중시, 외국무역의 방침에 따른 수입무역, 저렴한 수입품 원가, 투기 상업이 적은 것, 상업상의 일관된 연락, 질소 인내, 생산적 소비”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상인은 이러한 청상의 검소하고 인내심이 강한 점이 성공요인이므로 그들의 장점을 알고 각성하여 세력진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²⁾

한편 이데(井手正一)는 일본인이 조선의 내지행상에서 곤란한 점은 시장이 멀고, 현지의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교통운수 기관이 불완전한 것이다. 일본상인이 조선에서 행상하기에는 부적당하지만 조선인의 생활 상태를 신속하게 일본화 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즉 행상이 조선인의 동화책으로 중요한데도 일본인이 주저하는 사이에 청국이나 미국 등 외국인이 내지 상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한 상인의 패망에 그치지 않을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했다.⁹³⁾ 특히 시오자키(塩崎誓月)는 경성지역의 지나인이 다수가 아닌데도 상업 세력이 대단하다고 보았다. 상업도덕심도 강하고 일치단결을 잘하며 적은 이익에도 잘 움직여 商界의 권력은 점차 그들 수중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했다. 즉 경성지역에서 세력을 실추하면 그 영향이 전국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본상인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⁹⁴⁾

2) 신일본 건설과 조선 경영론

조선이주 안내서를 간행한 목적의 하나는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하여 조선에 일본인촌을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하나는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켜 조선을 경영하고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이주식민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어떤 점에 착안했는지 살펴보자.

첫째, 신일본의 건설이 필요하다. 오사다(長田信藏)가 일본인의 조선이주를 촉구하게 된 계

88) 최혜주 옮김(本間久介 지음), 『朝鮮雜記』, 6부 청국의 야심과 일본의 열세 194-211쪽.

89) 矢津昌永, 『朝鮮西伯利紀行』 「朝鮮貿易に對する紳商の談話」, 1894, 59-60쪽.

90) 岡崎唯雄, 『朝鮮内地調査報告』, 一般觀察, 開港場, 南部ト北部トノ比較, 1895, 1쪽.

91) 岡崎唯雄, 『朝鮮内地調査報告』, 내지행상, 1895, 9-15쪽.

92) 信夫淳平, 『韓半島』 제1장 부산 및 인천, 1901, 24-31쪽.

93) 井手正一, 『朝鮮之實情』 제13장 상업, 1910, 166-168쪽.

94) 塩崎誓月, 『最新の韓半島』 에도 보인다. 4) 경성과 용산, 1906, 29-30쪽.

기는 경부철도의 개통이었다. 종전에는 도한자들이 개항장에만 재류하였지만 이제는 철도를 이용해서 그 부근에 신일본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상류에는 제2의 부산을, 영산강 상류에는 제2의 목포를, 금강 유역에 제2의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장래 일본인이 진출하여 신일본을 건설해야 할 지역을 조선의 저명한 시장과 미개간 지역에까지 확장할 것을 주장했다.⁹⁵⁾ 사토(佐藤政治郎)는 신일본 건설의 근거지로 남한방면이 좋고 금강, 영산강, 낙동강 부근, 경부철도 본지선의 연선지를 선택하여 척지이민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⁹⁶⁾ 북한 의 경우 ‘동양무진의 보고’인 압록강은 만한경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곳이라고 언급했다.⁹⁷⁾ 압록강의 용암포와 두만강의 웅기만 개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상 국제관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⁹⁸⁾ 그러나 그는 러시아의 위기가 절박한데도 이권 확장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음을 비판한다. 적어도 북해도나 대만경영 방침과 동일하게 조선경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⁹⁹⁾ 이어서 일본정부의 조선경영 방침이나 일본영사의 자질 및 정견에도 문제가 있으며 재류 일본인도 영주할 목적으로 조선경영에 착수하는 자가 매우 적은 실정을 언급하였다. 일본정부의 확고한 대한정책을 촉구한 것이다.

둘째, 토지소유권의 장악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의 중요성은 토지소유권이나 저당권의 확보와 관련해서 여러 견해가 소개되었다. 먼저 가토(加藤政之助)는 토지소유권의 확보 진행을 일본정부가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열강이 최혜국 조관에 의해 균점을 요구해 온다면 번잡한 일이 생길 것이므로 당국자는 결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¹⁰⁰⁾ 다음 아마노(天野誠齋)는 일본인들이 거류지 외에 토지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도한계획을 단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인이 토지소유에 관심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¹⁰¹⁾ 이토(伊藤清藏, 盛岡高等農林 教授)도 조선인의 10분의 8이 농업인구이므로 식민에는 농업식민이 가장 적당하다. 일본인은 영구적으로 소작할 것을 약속하는 조선인 토지만을 매입하면, 조선에서 지주가 되어 그들이 지불하는 지대를 영구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조선인의 자본결핍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¹⁰²⁾

셋째, 조선인 교육이 필요하다. 조선인의 의타주의는 사대주의를 만들고 국가의 부강을 방해하여 왔다. 역사적으로도 동서의 강국으로부터 압제당하여 항상 사대주의에 복종해 온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시노부는 조선의 교육법은 기왕의 사대주의 정신을 교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한다. “자국의 역사를 버리고 支那史만을 받아들여 국민스스로 자기를 선천적 열등인종으로 여기는 비굴함을 양성하고, 아동 때부터 대국의 문물을 경모 숭배해 왔다.”고 하여 금일 교육이란 것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다.¹⁰³⁾ 다음 오사다(長田信藏)는 조선 扶植은 평화적으로 추진하여 50여 년 경영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식의 방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교육이다. 금후 수많은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가 필요하고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보급하는 일은 일본의 국풍을 동화시키는 교육에 다름 아니다. 조선

95) 長田信藏, 『韓國成業手引』, 「緒言」, 1903, 9-10쪽.

96) 伊藤政治郎, 『韓國成業策』 제4장 신일본 경영의 근거지, 1904, 15-17쪽.

97) 상동, 『韓國成業策 補遺』, 7. 중관철도 개통 후의 신 경영, 압록강의 철도경영, 1904, 148-149쪽.

98) 상동, 8. 웅기만 개방, 9. 용암포에 신일본을 경영해야 한다, 1904, 150-156쪽.

99) 상동, 『韓國成業策 補遺』, 2. 일한이익의 공통(상), 1904, 124-126쪽.

100) 加藤政之助, 『韓國經營』 제16장 결론, 제7 토지소유권, 1905, 185-186쪽.

101) 天野誠齋, 『朝鮮渡航案内』, 조선의 실리, 1904, 10-13쪽.

102) 伊藤清藏, 『韓國植民管見』 제9절 자본의 결핍을 이용하는 식민은 어떠한가, 1907, 18-20쪽.

103) 信夫淳平, 『韓半島』 제2장 경성, 1901, 128쪽.

인은 사대주의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에 의뢰하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일본인에게 접근하여 일본에 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¹⁰⁴⁾ 이데(井手正一)는 병합을 기념하여 그 의의를 강조하고 병합 이후의 조선통치에 대한 대강을 개진했다. 교육문제에서는 특히 농학교를 신속하게 착수해서 조선 농업의 개발을 가져오고, 의학교, 실업학교 역시 급선무다. 조선인의 동화교육을 위해 일본인 교육자의 분발을 촉구했다.¹⁰⁵⁾

이와 같이 일본이 조선을 경영하는 문제는 청일전쟁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러일전쟁 승리 후 본격화 된다.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하여 먼저 내지행상으로 상권과 토지소유권을 장악하고 신일본인촌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뒤 조선인에게 동화교육을 유도하여 병합과 함께 조선경영을 추진하려고 했다.

V. 맺음말

<표1> 개항전후부터 1910년까지 간행된 조선 안내서

간행년도	저자	도서명	출판사	비고
1874	染崎延房	朝鮮事情	三書房	戯作者, 언론인
1875	東條保	朝鮮誌略	須原屋茂兵衛	龍岡藩 유학자
1875	佐田白茅	朝鮮聞見錄	玉山堂	전 외무성관료
1875	多田直繩	朝鮮軍記	續文社	
1876	近藤保祿	朝鮮國地誌摘要	時習舎	栃木縣 士族
1876	榎本武揚	朝鮮事情	東洋社	『조선교회사』 번역
1876	瀬脇壽人, 林深造	鷄林事略		외무7등 출사
1876	總生寬	朝鮮新論	東京 萬笈閣	戯作者
1878	石幡貞	朝鮮歸好餘錄	日就社	외무4등 속
1880	坂根達郎	朝鮮地誌	前川源七郎	山口縣 士族
1880	秋野要一郎	通俗新編 朝鮮事情	風賴舎	栃木縣 平民
1881	伊澤磐	朝鮮事情		
1881	近藤眞鋤	朝鮮八域誌	日就社	외무성, 부산영사
1882	根村熊五郎	朝鮮近情	兎屋	長野縣 士族
1882	小林清親	朝鮮異聞	澤村屋清吉	
1883	關根痴堂	朝鮮國志	丸善	愛知縣 士族, 중국책
1883	宇津木貞夫	鷄林地誌	内外兵事新聞局	중국책 번역
1884	高山篤志	朝鮮事情		조선 유학생
1885	鈴木信仁	朝鮮紀聞	愛善社	東京府會 의원
1885	小尾直藏	朝鮮國京城奇談	東京 報告堂	
1885	高城義孝	兵要朝鮮事情		육군보병 대위
1887	小松運	朝鮮八道誌	博聞社	육군1등 軍醫
1888	陸軍參謀本部	朝鮮地誌略		
1890	小田切萬壽之助	朝鮮		외교관
1891	林武一	朝鮮案内	林武一	交際官試補
1892	青山好恵	仁川事情	朝鮮新報社	朝鮮新報 기자
1893	末廣重恭	北征錄	青木嵩山堂	時事新報, 중의원 의원
1894	柵瀬軍之佐	見聞隨記 朝鮮時事	春陽堂	毎日新聞 특과원
1894	本間久介	朝鮮雜記	春祥堂書店	二六新報 기자
1894	清水橋郎	朝鮮事情 鷄の腸	梅原出張店	三重縣 士族

104) 長田信藏, 『韓國成業手引』, 「결론」, 1903, 116-117쪽.

105) 井手正一, 『朝鮮之實情』 제7장 교육 충설, 1910, 81쪽.

1894	松本謙堂	朝鮮地誌要略	中村鍾美堂	大阪
1894	難波正一	朝鮮從軍渡航案内	日進堂	
1894	波多野承五郎	北支那朝鮮探險案内	林平次郎	전 천진영사
1894	津田仙	朝鮮地名案内	學農社	蘭英學者, 농학자
1894	足立栗園	朝鮮志	益友社	역사학자, 지리학자
1894	大田才次郎	新撰朝鮮地理誌	博文館	
1894	矢津昌永	朝鮮西伯利紀行	丸善	지리학자, 熊本大學 教授
1894	堀內松治郎	鷄林紀遊	北島茂兵衛	
1894	佐藤敬吉	支那朝鮮兵要地理案内	杉山書店	청일전쟁 시국해설
1894	海軍水路部	朝鮮水路誌		
1895	岡崎唯雄	朝鮮內地調査報告	岡崎唯雄	熊本상공회의소 회두
1900	巖山生	朝鮮半島の天然と人	兵事雜誌社	
1901	小川隆三	渡韓見聞錄	靜岡民友新聞社	실업가
1901	信夫淳平	韓半島	東京堂書店	외교관
1901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博文館	東亞同文會
1902	香月源太郎	韓國案内	青木嵩山堂	關門新報
1902	井原儀	韓國略誌	赤間關, 和田善平	교과용
1903	岡庸一	最新韓國事情	青木嵩山堂	언론인, 상업회의소
1903	長田信藏	韓國成業手引	大阪渡韓獎勵事務所	개성부거류민 총대
1903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흑룡회 회원
1904	山本庫太郎	最新朝鮮移住案内	民友社	
1904	天野誠齋	朝鮮渡航案内	新橋堂	
1904	矢津昌永	韓國地理	丸善	지리학자, 熊本大學 教授
1904	長田秋壽	露西亞朝鮮支那遠征奇談	文祿堂	불문학자
1904	小須賀一郎	渡韓の棗	又間精華堂	수의사
1904	桑村常之丞	清韓露渡航案内	小川尙榮堂	중군기자
1904	勝本永次	滿韓露案内	此村黎光堂	歙軒
1904	佐藤政治郎	韓國成業策	岡島書店	大阪毎日新聞 기자
1904	佐藤政治郎	韓半島乃新日本	日進舎印刷所	상동
1904	岩永重華	最新韓國實業指針	寶文館	신의주거류민 단장
1904	森潤三郎	朝鮮年表	春陽堂	서지학자, 京都府立圖書館 직원
1905	沖田錦城	裏面の韓國	輝文館	大阪毎日新聞 통신원
1905	松宮春一郎	最近の韓國	早稻田大學出版部	電報新聞 기자
1905	伊藤長次郎	韓國及九州談	東京	농정가
1905	加藤政之助	韓國經營	實業之日本社	중의원 의원
1905	田淵友彦	韓國新地理	博文館	문학사
1906	塩崎誓月	最新の韓半島	青木嵩山堂	朝鮮新報 기자
1906	圓城寺清	韓國之實情	樂世社	萬朝報 기자
1906	堀內泰吉, 竹中政一	韓國旅行報告書	神戸高等商業學校	神戸高等商業學校
1906	上村賣劍	清韓遊踪	東京堂	岩水公論 사장
1906	荒川五郎	最近朝鮮事情	清水書店	중의원 의원
1907	伊藤清藏	韓國殖民管見	전국농사회	盛岡高等農林 教授
1907	農商務省 山林局	韓國誌	東京書院	農商務省 山林局
1908	薄田斬雲	暗黒なる朝鮮	日韓書房	京城日報 기자
1908	薄田斬雲	ヨボ記	日韓書房	상동
1908	青柳綱太郎	韓國殖民策	輝文館	재무관
1909	櫻井市作	僅日錄	新潟公友社	積善組合 이사
1909	佐村八郎	渡韓のすすめ	樂世社	宏文學院 교수
1909	小松悅二	新撰韓國事情	東亞研究會	讀賣新聞 기자

1910	朝鮮日日新聞社	渡韓成功法	實業之日本社	朝鮮日日新聞社
1910	足立栗園	朝鮮新地誌	積善館	지리학자
1910	井手正一	朝鮮之實情	公友社	
1910	地理研究會	朝鮮新地理	田中宋榮堂	地理研究會
1910	奧田抱生	朝鮮年代記	吉川弘文館	교육가

【토론】

일본인의 조선 안내서 간행실태와 조선 인식(최혜주 선생님) 토론문

하지연(이화사학연구소)

이 분야에서 단연 최고의 연구자이신 최혜주 선생님의 발표를, 문외한인 제가 토론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얇은 질문이나 생각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1. 제목에서 시기를 대강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떠할지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개항이후(1870'~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 이주 안내서의 간행실태와 조선 인식>
<메이지 시기 일본의 조선 안내서 간행실태와 조선 인식>

2. II장의 시기별 구분

II장에서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간행물들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구별, 소개하셨는데, 일단 70년대는 안내서 자체가 많지 않고, 1870~80년대는 일본의 조선 강제 개항과 정치 및 군사, 상업적 침탈 목적 등에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I에서 시기별로 간행물 소개를 하고, 이어 III에서 목적, IV에서 조선 인식을 서술하다보니,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III 단원은 소략합니다. 그러면서 III, IV 단원에서는 1870년대부터 1900년대를 시기적으로 큰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대한정책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 3, 40년을 한꺼번에 서술하여, 각 간행서들의 발행목적과 조선 인식의 시기별 차이와 변화를 읽어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시기를 개항기 / 청일전쟁 전후 / 러일전쟁 전후의 3시기로 구분하고,

간행물의 종류 소개와 목적, 간행물에 나타난 인식도 이 3시기별로 소개, 서술하면 3시기별 간행물의 발간 주체의 변화, 간행물의 내용 변화, 간행물에 나타난 조선 인식의 변화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 머리말

II. 개항기 조선 안내서의 간행과 야만적 조선론

1. 개항기 조선 안내서의 발간 주체와 목적 (발간과 특징)
2. 일본적 오리엔탈리즘과 근대 문명론적 조선인식

III. 청일전쟁 전후 조선 안내서의 국민적 제국주의와 러시아 경계론

1. 청일전쟁 전후 조선 안내서의 발간 주체와 목적 (발간과 특징)
2. '이익선' 조선과 조선보호국론

IV. 러일전쟁 전후 척식론과 조선경영론

1. 러일전쟁 전후 조선 안내서 발간의 주체와 목적 (발간과 특징)
 - 1) 언론계의 안내서
 - 2) 교수 및 학자들의 안내서
 - 3) 정부기관 및 관리들의 안내서
2. 식민경영론과 신일본 건설론

V. 맺음말 - (1870~1910까지의 간행서에 나타난 종합적 조선인식론 정리)

3. 2번의 연속입니다. (이미 최혜주 선생님께서 기존 연구에서 시기별로 연구를 진행해 놓으셨기는 하지만) 시기별 안내서 간행물 분석과 아울러 발행기관별, 저자 직업(신분)별 (군인, 외무성 직원, 농상무성 직원 군현관리, 유학생 등 다양) 분석도 가능한지, 각 발행 기관별 내지 지방별 간행서가 행정부의 성격을 반영하고, 지방 특색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서의 조선 인식, 분석 태도, 발행목적 등이 대 동소이한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4. 실제로 이런 조선 안내서의 간행이 일본의 일반인들에게 미친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가 궁금합니다.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의 경우는 사실 일본 정부의 이민(척식)론이나 구체적 실현 정책, 러일전쟁의 승리와 러일 전 전후 군용지 불하, 1906년의 토지가옥 증명규칙 등 각종 시책들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드러낸 바가 더 클 것으로 압니다.

(: 개항 이후 부산에 일본인 54명, 1885년에 4,521명, 1890년에 7,245명 거주. 청일전 후에 12,303명, 러일전 이후 42,460명, 1910년에는 17만 여명으로 급증. 그렇다면, 국가 정책, 침략에 수반하여 증가한 것이지, 이러한 안내이주서의 영향력으로 볼 수 있는지.....)

과연 순수하게 이러한 안내서에 고무되어 조선으로 이주를 선택한 일반인들을 계량적으로 추정이 가능한지, 따라서 이 안내서들의 파급 효과는 주로 민간차원이라기 보다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실제로 이 책의 주요 독자층 분석은 가능한지, 조선 이주를 시도할만한 계층이라면 특히 초창기의 경우 일본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계층이 아니라, 토지에서 유리되거나, 상업상 신천지에서의 인생역전, 소위 '한탕을 꿈꾼 뜨내기' 비주류권일텐데, 이들의 교육 수준이나 당시 신지식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서적들이 설득력 있게 효과를 발휘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 단위의 척식과 호소카와(細川)처럼 영주를 따라 이주한 경우,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石川縣農業株式會社)처럼 현이 주관하고, 농업주식회사를 세워 이주시킨 경우, 영주 휘하 집단이주나 현 단위 주식회사 척식은 군현단위의 권유와 정보가 큰 영향을 주었을 듯합니다. 실제로 호소카와 농장의 경우에는 정관계 라인과 정보력이 있었고, 이시카와 현도 현정부가 전폭적으로 자금지원과 보증을 서서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일반 소농들의 문해력, 상황(현실)판단력, 정보력 등으로 볼 때, 과연 이 안내 책자의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가 궁금합니다.

5. 실질적 서적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발행 부수나, 각종 신문잡지 등에서의 서적 광고, 혹은 군현단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도서인용 근거 등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군현(지방 행정 관청)이나 중앙부서, 혹은 이주협회(단체) 등등이 이러한 안내서 간행에 정책적으로 후원(자금 지원, 조선에서의 편의나 안전 제공) 등이 있었던 것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물로 나온 간행물들을 기반으로 일본 내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광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주홍보, 이주장려 등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순수하게 연구 내지 학문적, 개인적 관심사에서 진행된 안내서와 관찬(관 및 단체 후원-대부분이었겠지만)의 대강의 비율도 궁금합니다.

6. 이러한 안내서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에 따라 상당히 당시 조선에 대하여 ‘비하적, 멸시적, 식민 대상지역에 대한 종주국 내지 점령국으로서의 우월감, 불모지 내지 후진적이고 야만적 지역 및 주민에 대한 개발 및 선도의 입장’이 당시의 일반적인 패턴일듯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인해 색안경을 쓴 채 실제 조선의 현실과 사실보다 더 비하적으로 바라본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조선을 답사하고 쓴 경우나, 장기간 거류하면서 그 경험을 쓴 서적의 경우도 지나칠거 없이 기본적으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한계이자 실제 팩트에 근거한 것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조차도 사회진화론의 세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기인데, 청일·러일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만주 및 대륙으로의 진출과 서구열강과 대등한 제국주의 국가로 가속 패달을 밟던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시각과 인식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인들의 인도 척식(식민)과 프랑스인들의 인도차이나 척식(식민) 등, 이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식민화의 패턴은 동일한 유형과 인식체계가 아니었나, 세계적인 특징이고 시대적인 한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결론부분에서 이 간행서들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견제, 포화상태의 인구배출,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조선멸시관 등등으로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정해진 답변을 도출해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우리 시각에서 과연 왜곡된 시각이며, 침략을 합리화하는 인식이었다고 하는 단죄적 결론보다는 그러한 인식과 시각이 당시 우리 조선에 작용되고 미친 영향력과 파급 효과의 규명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또 향후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7. 한편 이 뒤뜰어진 시각의 기록물들이 상당히 사실적, 실제로 사실을 반영(묘사)한 귀중한 당시 현장 조사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을 듯 합니다. 적절한 비교 대상일 수는 없으나, 마치 우리가 고대사(특히 가야 부분)에서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사료 환경에서 『일본서기』에 의지하거나, 차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구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처럼 당시 조선정부나 대한제국의 우리나라 개항장, 주요 도시, 지방, 포구, 상업실태, 운송 및 교통수단, 시장 실정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턱없이 부족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의 조선안내서들이 당 시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기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절감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안내서의 사료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활용해야 할 지도 연구의 딜레마이자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8. 또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공식적인 수신사 파견과 비공식적 조사시찰단 파견 등등도 있었는데, 또 다른 이러한 조사활동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으로의 이주나, 과잉인구배출, 부족한 농경지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없어서 였는지, 개항이후 거센 반일, 항일 감정으로 인해 이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이든, 개개인 차원이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지, 사실 생계를 위해 일제 강점기 타지역보다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이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할 때,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이주 안내서는 혹시 있었는지, 특히 대한제국 말기 통감부의 영향력이 강해지던 시기에는 일본으로의 이주 안내

문제가 제안되고, 홍보된 경우는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상으로 이 연구주제에 있어서 독보적 입지의 최혜주 선생님 연구를 제가 토론을 한다는 무리수와 한계를 절감하면서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토론이 아닌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정신없는 질문지를 깔끔하게 최혜주 선생님께서 정리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이상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문학인 여행기를 통해 본 조선과 중국에 대한 인식

이한정(상명대)

1. '에마키모노'의 세계를 탐닉하며
2. 초(超)'일본적'인 것을 향해서
3. '조선다움'의 저편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에 관한 여행기나 소설 등을 남긴 일본 문인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근대일본의 대표적 작가 나쓰메 소세키(1867-1916)는 1909년에 조선과 만주를 여행하고 『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ころどころ)』¹⁾을 남겼고, 나쓰메 소세키의 친구이자 하이쿠 작가인 다카하마 교시는 1911년에 조선을 방문하고 『조선(朝鮮)』²⁾이라는 소설을 집필했다.

일본인들이 조선과 만주를 여행하기 시작한 것은 러일전쟁 직후 1906년 무렵부터이다.³⁾ 문인으로서 일찍이 한국 땅을 밟고 한국 관련 소설을 쓴 인물로는 나카라이 도스이가 있다. 그는 1881년 무렵에 아버지가 거주하는 부산으로 와 당시 한국의 정치적인 사건을 취재하였고 이를 『변방에 부는 바람(胡砂吹く風)』⁴⁾이란 정치소설에 담았다. 이 작품은 일본의 혁명가가 한국에 건너가 한국의 개화파와 협력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또한 나카라이 도스이는 『춘향전』을 일본어로 최초로 번역했다. 나카라이 도스이 이후 중군기자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한국을 스쳐 지나간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작가 구니기타 돗포를 필두로 프롤레타리아 작가 나카니시

1) 한국어 번역판 『만주와 한국 여행기』(김유영 역, 소명출판, 2018) 외 참고.

2) 한국어 번역판 『조선』(김영식 역, 소명출판, 2015) 외 참고.

3) “1906년 아시히(朝日)신문사가 기획한 ‘滿韓巡遊船’은 수학여행과 교원여행을 포함하여 한국과 만주를 대상으로 한 단체해외여행 붐의 발단이 되었다. ‘만한순유선’은 아시히신문사가 광고를 통해 일본 전국에서 389명의 여행객을 모집하고, 기선과 기차를 빌려 30일 동안 한국과 만주 각지를 안내자가 동반하는 패키지여행 형태로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여행의 목적은 개인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戰場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나아가 장래에 일본의 경제적 확대를 실현할 토지를 실제로 시찰하는 데 있었다.”(정치영, 米家泰作, 「1925·1932년 일본 지리 및 역사교원들의 한국 여행과 한국에 대한 인식」, 『문화역사지리』 제29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p.1)

4) 한국어 번역판 『조선에 부는 모래바람』(권미경 역, 케포이북스, 2015) 참고.

이노스케 등 다수의 일본 문인이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에 대한 작품을 남겼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 소설가 다니자키 준이치로와 시인 기노시타 모쿠타로, 소설가 다야마 가타이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조선과 중국에 관한 인식을 살펴 보겠다.⁵⁾ 일본 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여행하고 쓴 작품을 보면 1911년부터 1925년까지의 방문에서는 “조선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훌륭한 문화유산을 찬미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조선의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시하는 태도이며,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⁶⁾ 이러한 조선 인식은 1925년 이후 조선을 방문한 작가들의 시선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조선 땅을 직접 밟고 조선 사람들을 눈으로 마주한 일본 문인들에게 조선과 조선인이란 ‘실체’는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에마키모노’의 세계를 탐닉하며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1918년과 1926년에 조선과 중국을 여행했다. 그 생애의 유일한 해외여행이다. 1918년에는 10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도쿄-시모노세키-부산-경성-평양-평토편(奉天)-톈진(天津)-베이징(北京)-한커우(漢口)-주장(九江)-루산(廬山)-난징(南京)-친화이(秦淮)-쑤저우(蘇州)-상하이(上海)-항저우(抗州)-고베-도쿄를 돌아보았다. 1926년에는 1월 6일에서 2월 19일까지 도쿄-나가사키-상하이-고베의 코스로 상하이 방문이 주목적이었다.

1919년에 발표한 여행기 「조선잡관」은 부산항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시내 뒤쪽에 우뚝 솟아 있는 작은 산 위를, 새하얀 옷을 입은 조선인들이 선명한 가을 아침의 햇살을 듬뿍 받으며 허리를 굽히고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하루 밤 사이에 나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페어리 랜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고 묘사하며 조선의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감탄하는 어린아이와 기분을 드러낸다. 비 내리는 일본을 장시간 지나온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일 년 내내 언제나 이런 경치와 날씨가 계속된다면 아마 조선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낙원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이국정취를 자극하는 조선의 풍경에서 곧바로 “순수한 일본화의 물감 색”을 발견한다. 경성에 도착해서는 광화문 거리를 본 느낌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헤이안 시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쓰거나, 역사화를 그리려는 소설가와 화가는 에마키모노(繪卷物, 두루마기 그림)를 참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선에 있는 경성과 평양을 볼 것을 권하고 싶다. 경성의 광화문 거리의 주변을 걷고 있자니 예전에 내가 썼던 희곡 작품인 「우구

5) 이 발표문의 많은 내용은 필자의 「1920년 전후 일본 문학자의 조선 여행-기노시타 모쿠타로, 다니자키 준이치로, 다야마 가타이」(『일본어문학』, 일본어문학회, 2011)에 의거하고 있다.

6) 이한정·미즈노 다쓰로 편역, 『일본 작가들이 본 근대조선』, 소명출판, 2009, p.4. 본 발표에서 이 번역 작품집에 수록된 여행기를 다룰 경우에는 별도 출처 표시는 하지 않고 여행기 제목과 초출연도만을 인용문 뒤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스히메(鶯姬)의 작중인물이 된 듯했다. 낙낙한 흰 사냥 옷을 입었던 헤이안 시대 교토의 서민 풍속과, 지금 경성 평민의 복장은 그 느낌이 전혀 차이가 없다. 이곳에는 이치메가사(市女笠, 대나무 껍집로 만든 삿갓)와 비슷한 밀짚모자(編笠)를 쓴 남자도 지나간다. 예보시(烏帽子, 까마귀 깃털처럼 검게 칠한 보자기 형태의 모자)와 비슷한 모자를 쓴 사람도 지나간다. 가쓰기(被衣, 헤이안 시대에 신분이 있는 여성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감추려고 두른 옷)와 비슷한 옷을 폭 뒤집어 쓴 부인이 옷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간다. 이렇게 그들 얼굴까지도 에마키모노에서 튀어나온 듯이 둥글둥글하며 넓적하고, 눈이 가늘고 낮은 코를 가진 사람이 매우 많다. (『조선잡감』 1919, pp.130-131.)

여기에서 ‘1918년의 조선 땅’은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존재했던 일본 고대의 땅’으로 둔갑하여 일본 문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는 서양인들이 근대동양에 고대성을 투시해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과 상통한다. 조선은 여전히 고대 안에 머물러 있다는 시선으로 ‘실체’의 풍경을 ‘그림’이라는 액자 속에 담아 버리는 태도이다. 1910년대가 되면 인력거가 광화문 거리를 달리고 있던 때였으나 다니자키 준이치로에게 그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보였어도 의도적으로 안 본 것으로 했을 것이다. 1913년에 조선을 다녀갔던 근대일본의 저명한 미술가 후지시마 다케지는 “조선은 모든 점에 있어 古來로 변화나 진보가 없었기 때문에 복장에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고대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부인이 걸치고 있는 녹색의 被衣와 薄色の 치마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멋이 있습니다. 마치 일본 왕조 시대의 에마키모노를 눈앞에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⁷⁾라고 말하고 있다.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물론이고 일본인에게 조선은 일본의 고대 환상을 심어주는 곳이었다.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중국에서도 중국의 풍물을 바라보면서 일본의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며 “이쪽에서 보면 숲이 있는 부군이 아무래도 깨끗한 아름다운 선경(仙境)과 같이 느껴졌다. 옛날이야기 속에 나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은 분명히 이러한 곳이 아닐까. 그리고 모모타로(桃太郎)의 복숭아가 흘러 내려오는 강은 대개 이런 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⁸⁾라고 『쑤저우기행』에 쓰고 있다. 그가 방문한 현실의 조선이나 중국은 ‘공상’의 세계였다. 눈앞에 있어서 펼쳐지는 여행지의 ‘실체’를 ‘사실’로 간주하지 않고 ‘공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문인의 예술 감각에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초(超)‘일본적’인 것을 향해서

기노시타 모쿠타로는 1916년부터 남만주 의학당 교수 겸 평텐병원 피부과 부장에 취임해 1920년에 사직하고 나서 만주와 조선을 여행했다. 그의 여행은 만주에서 조선

7) 藤島武二, 「朝鮮觀光所感」 『美術新報』 第13卷5号, 1914年3月, 김정선, 「후지시마 다케지의 조선 표상」, 『文物研究』11,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2007, p.116에서 재인용.

8) 谷崎潤一郎, 「蘇州紀行」 『谷崎潤一郎全集』 第6卷, 中央公論社, 1968, p.228.

으로 들어와 평양-강서-신지도-매산리-경주(불국사)-경성(박물관)-금강산 등을 도는 코스였다. 1920년 10월호 잡지 『태양』에 발표한 「조선풍물기」는 철학자 와쓰지 데쓰로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쓰였다. 이 여행기 첫머리에는 “이번 우리의 여행은 고전 예술품의 감상으로 시작해서 박물학에 관한 흥미로 끝났습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기노시타 모쿠타로의 조선의 조형예술, 고분벽화, 불상, 풍경 등 다양한 관심사가 이 여행기에 담겨 있는데 그의 ‘박물학에 관한 흥미’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다니자키 준이치로나 후지시마 다케지의 시선도 투영되어 있다.

지금 마치 그 수확기여서 외금강 신계사의 앞, 고성 부근, 그리고 내금강의 구 백화암 근처 밭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녀가-혹은 히다(飛驒)의 솜씨 좋은 목수가 썼음직한 검은 두건을 쓰고-게다가 붉고 푸른 옷을 입고 어린 아이도 섞여 함께 수확하고 있는 풍경은 미나미 군조(南薰造) 군, 오노 류토쿠(大野隆徳) 군의 그림이 연상되는 전원풍경입니다. (『조선풍물기』 1920, p.155.)

금강산을 여행하다 바라본 농촌 풍경에서 기노시타 모쿠타로는 헤이안 시대의 ‘히다’(현재의 기후현)에 살던 목수를 떠올린다. 여기에서는 헤이안 시대의 풍경이 조선과 중첩되면서 현실의 조선 사람들마저 고대 일본인과 겹쳐진다. ‘하얀 옷’은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이거나 일본인이 조선 사람을 묘사할 때 거의 언제나 사용했던 말이다. ‘하얀 옷’은 분명 여행지에서 목격하는 조선인에 대한 표상이나 이를 무시하고 현실의 조선을 일본 고대에 담았다. ‘그림’은 실체의 동작을 화면에 정지시키는 작업을 수반한다. 조선을 여행한 일본 문인과 조선 풍경은 차창을 사이에 두고 차 안과 차 밖으로 서로 분리된 채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을 바라보는 듯한 감상자의 위치에 있는 일본 문인들의 조선 인식에는 “원근법에 의하여 세계를 소형화시키고 액자 속에 넣으며 소유하고 싶다는 근대 특유의 시각인 소유욕”⁹⁾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즈노 다쓰로는 「조선풍물기」가 “기노시타 모쿠타로가 초기의 이국취미를 벗어나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에 눈뜬 무렵에 쓰여졌다”고 하면서, 이 여행기가 “동질성을 강조하는 동시대적인 흐름을 상대화하고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서 인정하는 시점을 확보하는 형태로 남겨진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여행기에는 조선에 대해 “동일한 문화권인가 ‘오리엔트’인가를 확정하지 않고 조선에 대한 당시 인식의 불안정함이 아로 새겨져 있다”¹⁰⁾라고 했다. 1919년 3.1운동의 충격에서 일본과 융합을 강조하던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 속에 「조선풍물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선에 대한 당시 인식의 불안정함’이 기노시타 모쿠타로에게 보인다는 미즈노 다쓰로의 의견은 타당하다. 하지만 「조선풍물기」에서 말하는 ‘박물학에 관한 흥미’가 일종의 박물관으로서 조선 풍경을 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기저에 두고 있다는

9) 伊藤俊治, 편집부 역, 「본다는 것의 위상기하학」, 『이미지』, 동문선, 1990, p.248.

10) 水野達朗, 「木下太太郎『朝鮮風物記』の位置」, 『比較文学・文化論集』, 東京大学比較文学・文化研究会, 2008, p.61.

것도 사실이며, 기노시타 모쿠타로의 박물관적 상상력은 곧 미술품 감상자, 나아가 미술품 소유자로서의 자세도 나타내고 있다.

경성의 이왕가와 총독부의 박물관에 있는 금동 여의륜관음은 이보다도 훨씬(150이나 200년 정도) 오래된 것입니다. (중략) 특히 이왕가에 남아 있는 것이 매력이 있습니다. 불상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는 표현은 매우 모독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싶을 만큼, 우리 근대인들의 마음과 가까운 것입니다. 높이는 60센티 정도 될까, 아니면 더 높을지도 모르며 자비와 앓된 표정을 지닌 청정한 여체입니다. 만일 주구지(中宮寺)의 관음에 모성의 느낌이 있다면, 이 관음에게는 처녀성의 인상을 받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당신이 추구지의 여의륜과 나라(奈良)에 있는 불상에 특별히 일본적인 성격을 새겨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추구지가 일본적이고 이것이 조선답다는 차이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풍물기』 1920, p.149.)

와쓰지 데쓰로가 말하는 ‘일본적’이라는 것에 대해 기노시타 모쿠타로의 조선 불상에 대한 감상이다. 실제 이왕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음에 ‘처녀성의 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그 시선은 의심스럽다. 기노시타 모쿠타로는 경성의 호텔에서 엿보았던 “무대 위의 가련한 조선의 소녀(기생)”을 보고 “너무나도 불결한 중국의 기녀를 보았던 눈에는 그 청결함만으로도 호감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단조롭고 작은 형태이다, 그러나 귀엽기도 하며 청결하다. 이것 역시 어느 정도에서는 조선의 예술적 문화의 특징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기녀와 대비해 불상의 ‘처녀성’과 ‘소녀’의 청결함¹¹⁾이 강조된다. ‘소녀(기생)’와 ‘조선의 예술적 문화의 특징’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자세에는 주의를 요한다. 추구지의 ‘모성’의 안정감과 대비되는 ‘처녀성’의 신비화는 현실적으로 정복과 소유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노시타 모쿠타로와 동일시기에 조선을 방문해 글을 남긴 야나기 무네요시도 조선의 예술에 대해 “여인처럼 차분하게 안으로 숨은 조용한 빛이다. 우리는 밖으로 나오려는 어떤 오만도 여기서 찾아볼 수 없다. 모든 아름다움은 내부로 감싸여 있다”¹¹⁾라고 했다. 조선의 예술은 신비로운 ‘처녀성’과 같은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기노시타 모쿠타로는 조선의 도자기에 대해 “중국의 것은 대체로 강한 의식이 엿보이지만, 조선 도자기는 무의식적이고, 우연한 느낌을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라고 하며 “무의식적이고, 우연하고, 적당히 만들며, 정교하지 않으며,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의식이 희박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기노시타 모쿠타로는 와쓰지 데쓰로에게 “나는 자신 있게 조선이라는 작은 바다에서 붓을 들어 어느 사이에 조선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푸른 바다로 들어섰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와쓰지 데쓰타로는 “형의 향의는 간단히 말하면, 스이코 텐표의 불교미술을 ‘일본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형은 그것을 조선 고미술의 인상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작은 요구는 불행하게도

11) 야나기 무네요시, 심우송 옮김, 『조선을 생각한다』, 학고재, 1996, p.113.

형이 마음에서 동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일본적이라 부르는 것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구지 관음은 일본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일본적이라고 각인하고 싶은 이유는 미술의 가치 때문이 아니고 일본문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획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형의 이해를 얻고 싶습니다”(『조선풍물기』 1920, p.161.)라고 말하고 있다. 기노시타 모쿠타로는 이왕가의 관음에서 ‘일본적’과 ‘조선적’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을 포착하며 거기에 ‘처녀성’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와쓰지 데쓰로는 ‘일본적’인 것을 ‘인류적’인 것과 동일시한다. 조선을 여행하지 않은 와쓰지 데쓰로는 ‘일본적’을 넘어서 ‘처녀성’의 지점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실체’를 앞에 두지 않는 ‘공상’은 그에게 가능하지 않았다.

3. ‘조선다움’의 저편

다야마 가타이는 기행문을 쓰는 작가로서도 활약하며 일본의 산과 온천을 둘러보고 나서 『산행수행』이나 『온천 구경』 등의 작품도 간행했다. 그는 1923년 3월부터 6월까지 남만주철도의 초청을 받아 서양화가 마야마 고지와 함께 만주와 조선을 여행했고 1924년에는 『만선의 행락(滿鮮の行樂)』을 출간했다. 조선 여행에 대한 기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강산에 대한 내용이며 일본의 산과 비교하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즈노 다쓰로는 다야마 가타이는 『만선의 행락』에서 “일본의 산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일본적인 미의 기준을 체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금강산은 말하자면 ‘조선의 미’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식민지 지배라는 큰 틀에 서이긴 하나 ‘내지’와는 다른 가치의 존재를 깨닫고 이것을 최대한 인정하려고 하고 있었다”¹²⁾라고 하고 있다. 다야마 가타이의 금강산에 대한 동시대의 담론과는 동떨어진 시선은 조선의 풍경을 바라보는 자세에도 나타난다.

평양의 을미대 주변에서 바라본 산수의 느낌은 어디까지나 조선이고, 결코 중국도 일본도 아니라는 점이다. 북경(北京)의 만태산(萬泰山)이 중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을미대가 조선을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소나무가 많은 그 형태에서도, 기복을 이루고 있는 언덕 사이에 채색된 문이나 전당 등이 서 있는 모습에서도, 또는 대동강의 맑고 얇은 물이 그려내는 장면이 눈 아래 펼쳐지고 있는 광경에서도……. “실제로 저곳에 가면 정말로 조선 같다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친 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웬지 도사파(土佐派, 풍속 묘사를 주로 그리고 일본화의 한 유파)의 그림 같은 기분이 드는 걸, 헤이안조, 후지와라조의 느낌이 들어, 역시 일본은 옛날에는 조선과 같았던 거야. 조선의 풍속이, 그 느낌이 그대로 후지와라조, 헤이안조에 모방되어 간 거겠지? 일본의 옛 교토는 딱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은가?”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만선의 행락』 1924, pp.210-211.)

12) 水野達郎, 「田山花袋『滿鮮の行樂』の戰略」, 『比較文学・文学論集』 第24号, 比較文学・文化研究会, 2007, p.85.

조선을 모방한 것으로서 파악하는 고대 일본에 대한 시선은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기노시타 모쿠타로와 같이 ‘조선’에 대한 연민도 보이지 않는다. 경성을 구경했던 다야마 가타이는 “박물관에도 가 보았고 교외 청량리의 숲 속까지도 가 보았지만 그림에도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여러 가지 기분---조선과 일본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것 같이 기분이 나빠 나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단지 조선이라고 하는 느낌을 맛보는 점에서 말한다면 여기보다도 평양 쪽이 얼마나 더 순수한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을미대 위에 섰을 때, 나는 환성을 질렀다.
“좋은. 이대도 좋아. 대동강이 예쁘지 않나?”
이렇게 내가 말하자,
“정말이군요.”
“이런 것은 유화로는 표현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요……. 다소 모양이 다르지요.”
“아무 것도 섞이지 않은 동양이군요. 서양의 느낌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군요.”
“그건 그렇군요.”
“게다가 일본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뭐, 닮은 곳이 있다고 하면 중국과 다소 닮았을 까.”
“그렇지만 중국의 색채와는 또 느낌이 달라요.”
M군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만선의 행락』 1924, p.211.)

다야마 가타이는 여행의 동행자와 함께 평양에서 ‘조선’을 발견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순수한 조선’을 포착한다. 그렇기에 조선을 다니자키 준이치로나 기노시타 모쿠타로와 같이 ‘그림’에 담더라도 또 다른 시선이 엿보인다. 경주의 시장에 모여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후지와라 시대의 모습을 떠올리며 “커다란 우산. 그 아래 늘어놓은 생선. 흙이 묻은 채인 무, 감자, 연근. 그런가 하면 농기구 등을 일면에 진열한 노점. 그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태평스럽게 긴 담뱃대를 가지고 코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하얀 옷의 조선인. 뭘 봐도 지금의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후지와라조, 헤이안조의 에마키 속에 보이는 광경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인의 일상을 헤이안 시대로 가져가고 있으나 여기에서 ‘일상’은 하나 하나의 ‘실체’로 포착되고 있다.

또한 다야마 가타이는 경주의 불국사 호텔에서 호텔 주인에게 빌린 경주의 역사지리서인 『東京雜記』를 읽었다.¹³⁾ 이 책을 읽은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진귀하고 재미있는 사실들이 나온다. 고대 일본과의 교섭도 확실히

13) 다야마 가타이가 읽은 『東京雜記』는 1779-1670년(현종 10년)에 경주부사 민주면(閔周冕) 등이 편찬한 경주부의 읍지를 말한다.

탐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봐, 경주는 파보면 또한 얼마든지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군. S박사 등이 소동을 피우는 것도 무리가 아니군. 어째든 1200여 년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야. 나라라든가 히라이즈미라든가 말하더라도 정말로 여기 경주에는 미치지 못하지. 조만간에 반드시 다시 한 번 와서 천천히 머물러 봐야겠군.¹⁴⁾”

여기서 말하는 ‘S박사’란 아마도 1910년 조선총독부의 의뢰로 신라의 고적 조사에 참가했던 세키노 다타시(関野貞)를 가리킬 것이다. 세키노 다타시는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의 근거를 조선 남부지방의 고적 조사로 밝히려 했으나 찾지 못했다. 다야마 가타이는 조선 여행을 통해 ‘조선다움’을 알게 되고 일본을 새롭게 인식한다. 기노시타 모쿠타로와 같이 조선은 ‘일본적’을 넘어서는 장소가 아니라 되레 ‘일본적’인 것을 탐색하는 장소로 ‘조선다움’과 나란히 자리하게 된다.

“즉 헤이안 시대 무렵의 일본 춤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도 저 무용을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사 제례 때에나 남아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아직 저렇게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겠군요. 그것이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아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부터 생활양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여기에서는 그것이 변하지 않고 가옥, 복장, 도로, 타고 다니는 것도 모두 옛날 그대로 남아 있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후지와라 시대에서 헤이안 시대까지를 맛보고 싶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조선에 와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¹⁵⁾

다야마 가타이는 조선 기생의 무용을 바라보면서 일본 고대의 생활양식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조선잡관」에서 “그 유명한 기생이 온돌 위에 깔고 있던 등근 짚방석 같은 깔개에 고풍스럽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즐린 듯, 나른한 사이바라(崔馬樂, 헤이안 시대의 아악에서 부르는 노래 중의 하나)와 같은 조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더욱 그 느낌을 깊게 받았다.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벌인 연회도 아마 이러한 식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맛이 없고 유치한 조선 요리도, 그 당시 일본 요리와 서로 비슷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조차 들었다”(「조선잡관」 1918, p.131.)라고 하면서 다야마 가타이와는 달리 일본 고대의 생활양식에 향수를 느끼지 않는다. 그에게 고대 일본은 ‘에마키모노’와 같이 그림이나 ‘공상’ 속에 있을 뿐이지 ‘생활양식’으로 있지 않았다. 또한 기노시타 모쿠타로는 조선의 ‘소녀(기생)’의 춤에서 ‘조선적’ 예술의 특징을 찾을 뿐 예술에서 ‘생활양식’까지 탐색하지 않았다. 위 인용문에 이어서 두 사람은 조선의 문화도 차츰 ‘새로운 생활양식’이 들어와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과 같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대화를 나눈다. 다야마 가타이와 마야마 고지에게 ‘조선’은 “근대화 또는 서구화 과정 속에서 일

14) 田山花袋, 『滿鮮の行樂』, 大阪屋号書店, 1924, pp.460-461.

15) 田山花袋, 前掲書, pp.342-344.

본이 상실한 ‘아름다운 과거’ 또는 ‘순수한 일본’에 대한 향수”¹⁶⁾를 맞볼 수 있는 장소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선다움’은 ‘일본적’과 맞물려 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요소였을지라도 ‘조선’ 그 자체를 ‘실체’로 응시하는 태도에서 포착한 것은 아니었다.

16) 한정선, 「‘배제’와 ‘포섭’의 수사학: 일본인 조선 여행기와 근대문화 제국주의의 양상」, 『일본학연구』 제33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p.75.

【토론】

‘일본 문학인 여행기를 통해 본 조선과 중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토론문

권희주(건국대 KU중국연구원 조교수)

이 발표는 일본의 문학자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기노시타 모쿠타로(木下杢太郎),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조선과 중국에 대한 인식을 살핀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관한 여행기는 이제까지 조선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조선’을 누구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현’한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계로 대단히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의 발표는 무엇보다도 ‘재현된 공간’¹⁷⁾으로서의 조선을 ‘회화(에마키모노 등)’라는 틀을 통해 일본 문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조선을 공상, 구축하고 타자화, 내재화하는지를 분석하여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세 문학자의 여행기는 조선이 고대의 정취를 잘 담아낸 원시적 자연미를 갖추고 있고 이는 고대 일본을 소환하는 ‘향수’로서 일본과의 동일성을 탐색하면서도 오히려 현대적인 일본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포섭’과 ‘배제’의 논리를 따르며¹⁸⁾, 서구화로부터 조선의 ‘순순한 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국 일본’의 역량을 피력하여 식민지의 위계를 교묘히 잘 드러낸다는 분석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조선을 회화 작품처럼 고대의 모습 그대로 관리하고 싶다는 인식이야말로 조선의 ‘실체’를 고찰할 수 없었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정 교수님께서서는 이 시기의 여행기 및 소설, 또 재일코리안 문학 등의 분야에서 건실한 연구성과를 다수 내고 계셔서 평소에도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토론의 자리에 설 수 있어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과 제언으로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다른 문학자들의 글이 존재하는데 이 세 문학자의 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모두 1919년~1924년 사이에 발표된 글들인데 혹시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조선 여행기를 통해 드러나는 조선인과 조선 문화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수위는 다르지만) 게으름, 더러움, 단순함, 소박함, 순수함, 조선다움, 지방색, 이국취미, 그로테스크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러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의 팽창과 여행기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본 발표에서 다루고 있는 1919년 이후 몇 년간의 조선 관련 여행기와 그 이전 혹은 1930년대 여행기가 어떠한 연속성과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본 발표의 첫 번째 연구목적은 이들 문학자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조선과 중국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이 원인이라 생각되지만 중국에 대한 언급 부분이 많지는 않은 관계로 중국에 대한 인식 비교가 더 자세히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또 제재의 시기적 특성과 다양한 연구의 키워드들이 본 연구의 부제로 보강된다면 논지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7) 김풍기·홍성구, 「일제강점기 일간지 시대의 개막과 금강산 -192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68, 동아시아고대학회, 2022.

18) 한정선, 「‘배제’와 ‘포섭’의 수사학: 일본인 조선 여행기와 근대문화 제국주의의 양상」, 『일본학연구』, 33,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